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기념

불멸의 서사시



차 례



1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찾으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백두산, 조선의 기상인 혁명의 성산!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에 비운이 드리우고 조선인민이 생사운명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바로 이 혁명의 성산에서 조국광복의 홰불을 높이 추켜드시고 일제를 쳐물리치는 성전에로 인민들을 부르시였다.

영광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5성상 백두의 험산준령을 넘나드시며 일제의 백만대군을 쓸어눕히시고 마침내 조국을 해방하시였다.

만대에 길이 빛날 력사의 자욱이 력력한 여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찾아오시였다.

세상이 모두 우러러흠모하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오늘은 이땅에 《사회주의의 모범》의 나라를 일떠세우시고 주체의 빛발을 만방에 뿌리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여 3천리강토를 굽어보신다. 남조선땅에 짓눌린 암운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3천리조국땅에 공산주의지상락원을 펼치실 휘황한 미래를 구상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거연히 서시여 세상을 굽어보신다.



2 미제침략선 《샤만호》를 격침시키는 싸움의 선두에 서신 김응우선생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시며 근대조선 혁명운동력사의 빛나는 페지를 열어놓으신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 만경대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여 미제의 해적선 《샤만호》를 불사르기 위한 투쟁의 봉화를 높이 드시고 미제침략자들을 격멸하는 투쟁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우신 때로부터 한세기 이상의 긴긴 세월이 흘러갔으나 인민들은 그날의 선생님의 애국적위훈과 불멸의 업적을 못잊어 길이 찬양하며 노래부른다.



3 만경대에서 일제경찰과 투쟁하시는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귀순》시켜보려고 어리석게 발악하는 일제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을 서리발같이 꾸짖어 쫓아보내시는 원수님의 할아버님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 리보익녀사, 실로 정의로운것을 위해 한없이 담차시고 강직하시였던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저렇듯 위엄있는 꿋꿋한 기상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셨던것이다.



4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쳐싸우신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일찌기 조선독립의 큰뜻을 품으시고 반일혁명동지들을 묶어세우셨으며 《지원》(《志遠》)의 높은 뜻을 지니시고 혁명투쟁을 벌려나가신 김형직선생님!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조선의 힘을 묶어세우는 투쟁의 홰불을 높이 드시였으며 때로는 교편을 드시고 또 때로는 표면상 의사의 직업을 가지시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넓혀나가신 김형직선생님!

—조선독립은 오직 조선사람의 힘으로!

—무기를 가진 원쑤는 오직 무기를 가지고 때려눕혀야 한다!

이 신념, 이 결심을 안으시고 선생님께서 벌려나가신 투쟁의 길은 몇천몇만리던가!

정녕 한생을 조국에 바쳐 쌓아올리신 조선의 아버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업적과 위대한 혁명정신은 무궁토록 영원히 빛나리라!



5 **아버님께서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는 김일성원수님**

아름답고 유서깊은 만경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어리셨을 때 자주 아버님을 따라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여기 만경봉에 오르시여 아버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시군 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어리신 원수님께 항상 산좋고 물맑은 조국산천에 대하여, 조국강토를 짓밟고있는 일제침략자들에 대하여, 조선인민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그리고 대동강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의 무장해적선 《샤만호》를 때려부신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럴때마다 나어리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가르치심대로 꼭 훌륭한 애국자가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다지시군 하시였다.



6 만경대에서 무장투쟁을 조직준비하시는 김형직선생님

참으로 얼마나 많은 반일운동자들이 무장활동을 준비할데 대한 김형직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만경봉기슭의 추녀낮은 초가집을 떠나갔던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아버님이시며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무장활동준비사업과 정치문화계몽사업을 밀접히 결합 해나가는 독창적인 투쟁방법을 개척하시여 조국광복의 원대한 구상을 확신성있게 실천에 옮겨나가시였다.



7 조선국민회를 지도하시는 김형직선생님

《지원》의 애국사상을 지니신 열렬한 반일애국사상가이신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7년 3월 23일,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반일운동자들을 묶어세워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시였다.

조선국민회는 기울어진 조선을 떠받든 혁명의 기둥이였고 명맥이 끊어져가는 인민에게 더운 피를 준 조선의 심장이였다.



8 명신학교 운동회날

조국광복의 새벽길을 헤쳐나가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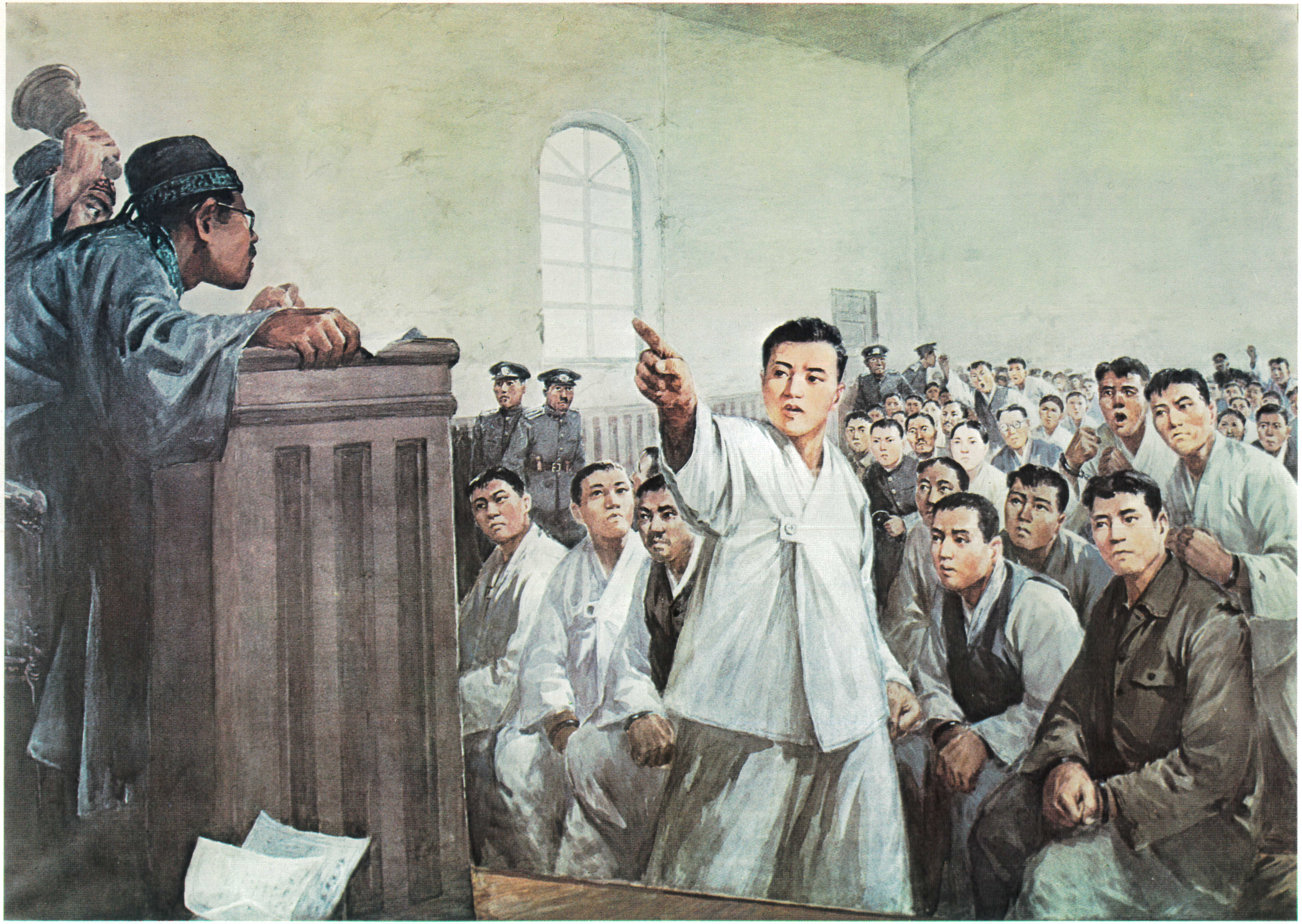
만경대로부터 강동으로 활동무대를 옮기신 선생님께서는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혁명운동을 하시였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명절이나 일요일같은 날을 택하시여 운동회를 벌리시군 하셨다.

운동회는 학생들에게 체력단련과 집단주의를 배양시키는데 필요하였을뿐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회에 대중속에 반일애국사상을 심어주는데도 좋았다.

그러나 이것만 위한것이 아니였다. 이런 운동회날에는 낯모를 사람들도 찾아들군 하였는데 그들인즉 조선국민회원이거나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여 여러가지 활동정형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투쟁과업을 주시군 하시였다.



9 법정에서 일제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김형직선생님

눈부시게 혁명활동을 벌려나가시던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사건》으로 1917년 가을,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 그러나 김형직선생님의 애국에 불타는 혁명정신은 그 어떤 야수적고문으로도 꺾을수 없었다.

일제놈들이 재판을 벌려놓고 선생님에게 2년의 징역형을 내렸을 때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히 항거하여 웨치셨다.

《나는 그런 징역을 질수 없다. 조선사람이 제 나라를 사랑하고 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슨 죄로 된단 말이냐…》

일제의 법정을 도리여 놈들을 단죄하는 심판장으로 만드신 선생님의 추상같은 목소리에 원쑤놈들은 전률했다.



10 조국광복의 뜻을 품으시고 만경대를 떠나시는 김형직선생님

1918년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옥중에서 구상하신대로 압록강연안과 남만일대에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옮기시려고 가족들의 전송을 받으시면서 결연히 고향 만경대를 떠나시였다.

그날 김형직선생님의 애국의 억센 투지와 자주의 기상이 어린 남산의 푸른 소나무들이 설레이는 가운데 조선의 새봄은 소생의 기운을 안고 움트고있었다.



11 공작임무를 주시는 김형직선생님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소선독립의 리념이나 그들의 낡은 투쟁방법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사조에 따라 사회주의10월혁명이 가리키는 길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몸소 이를 위하여 투쟁하신 김형직선생님! 선생님께서 계시던 집은 언제나 국내와 국외의 조직들을 하나로 이은 투쟁의 거점이였고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지휘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을뿐아니라 조선민족해방투쟁의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기도 하시였다.



12　조선독립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는 김형직선생님

《조국의 광복과 나라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우리들에게는 단결과 사상의 통일이외에 더 큰 무기는 없다. 조선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조선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떨쳐나서라!…》

김형직선생님의 격동적인 말씀은 반일독립운동자들과 인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선생님의 열화같은 호소에는 늘 동해가 끓고 산이 동했다.



13 무장을 갖추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무장활동준비를 위해 무기를 구하시는 한편 국내와 만주 각지에서 모여오는 선진적인 청년들을 팔도강에 있는 사회중명학교를 비롯한 무관학교들에 보내시여 군사정치간부를 체계적으로 키우시였다. 이와 함께 선생님께서는 만경대, 강동, 림강, 무송, 팔도구 등 이르는곳마다에 조선인학교를 내오시고 가난한 근로인민의 자제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시여 반일투쟁대렬에 묶어세우시였다.



14　무상치료를 베푸시는 김형직선생님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투쟁의 걸음걸음은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압록강일대에서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혁명활동을 하실 때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한푼 받지 않으시고 성심성의 병을 치료하여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가난한 농민들이 병을 보고 약값을 내겠다고 하면 《돈을 내겠으면 독립된후 우리 집에 찾아와 내라. …지금은 우리들이 이국땅에 와서 빈곤한 생활을 하지만 멀지 않아 나라를 찾고 다시 압록강을 건늘 날이 올것이다. 우리 그때 서로 만나 잘 살아보자.》고 말씀하시군 하였다.



15 어머님께서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는 **김일성**원수님

어린 시절부터 매우 총명하시여 일찌기 글을 익히셨던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부모님께서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면서 고결한 성품과 혁명적기질을 키워나가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나어리신 원수님으로 하여금 한자의 글자도 애국의 넋을 담아 쓰도록 교양하시였고 원쑤를 끝없이 미워하고 원쑤와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강의한 투쟁정신을 가지도록 가르치시였다.

아버님께서 옥중에 계실 때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원수님께 늘 아버지는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싸우시였다는것, 일제는 우리 나라를 빼앗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라는것, 어서 커서 아버님의 원쑤, 조선인민의 원쑤와 싸워이겨야 한다는것을 이야기해주시면서 어린 가슴에 반일애국사상을 넣어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어머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옥중에 계시는 아버님을 생각하시면서 어머님의 말씀대로 아버님의 원쑤, 조선인민의 원쑤를 꼭 갚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시였다.



16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도우시는 강반석녀사

온 강산이 어둠에 잠겼을 때 여기 만경대의 초가집 창문에는 불빛이 밝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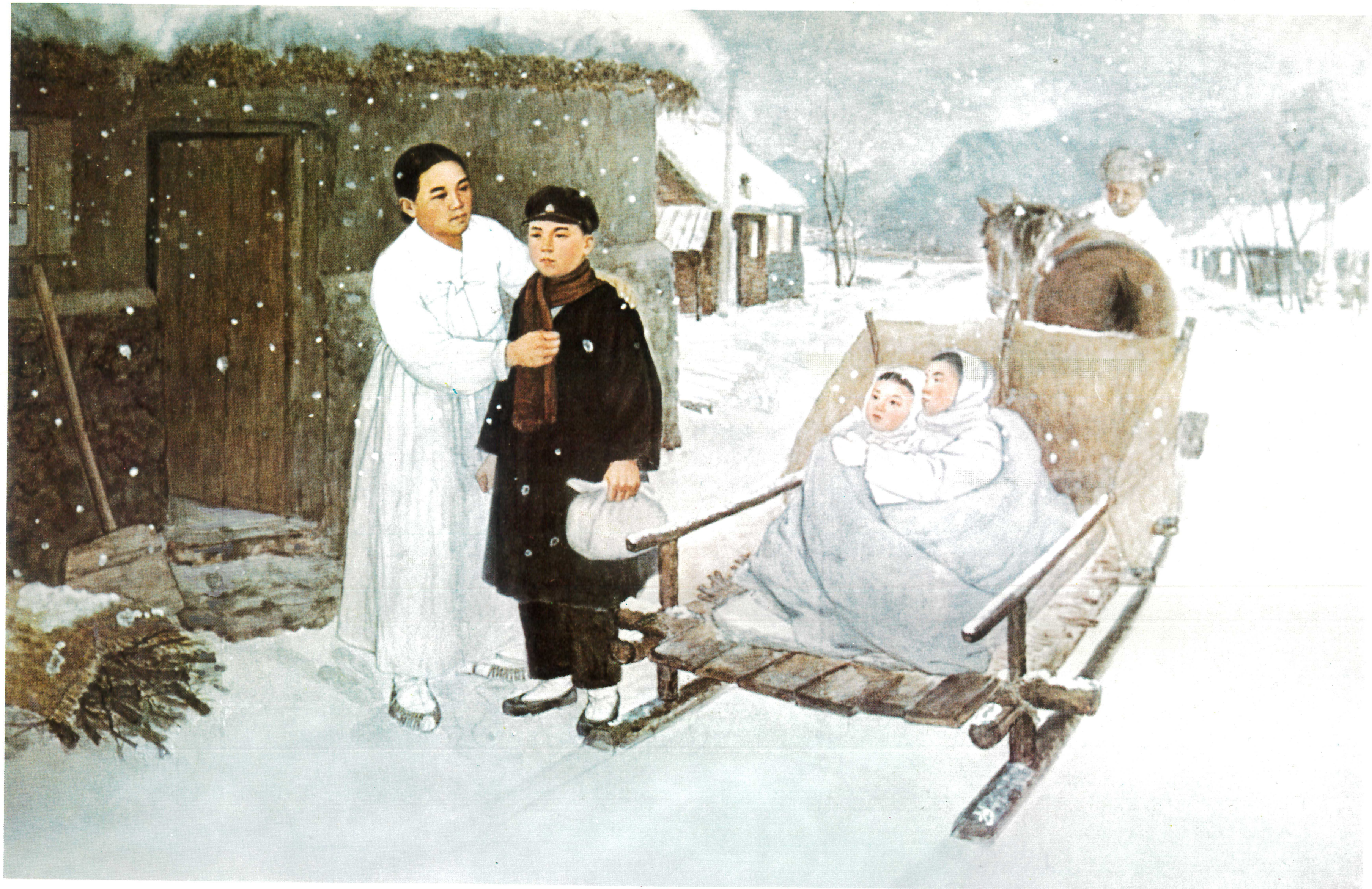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어머님이시며 탁월한 녀성혁명활동가이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위대한 혁명가의 안해된 긍지를 안으시고 일찌기 만경대에 계실 때부터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시였다.



17 혁명의 새 싹을 키우시여

유서깊은 혁명의 땅 봉화리에는 사철 마르지 않는 정다운 샘이 있다.

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탁월한 녀성정치활동가이시였던 강반석어머님께서 봉화산이 바라보이는 이 샘터에서 마을 녀성들의 가슴속에 반일애국의 씨를 뿌려주실제, 명신학교에서는 기쁨에 넘친 학생들의 우리 글 읽는 소리도 랑랑히 울려나왔다.



18 김일성원수님을 림강으로 떠나보내시는 강반석녀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열네살되시던 해인 1925년 초.

아버님께서 일제놈들에게 또다시 체포되시였다는 비통한 소식을 들으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고향 만경대를 떠나시여 어머님께서 계시는 동북 팔도구로 가시였다.

오래간만에 그것도 조국에서 천리길을 걸으시여 찾아오신 사랑하는 아드님을 만나시는 강반석어머님의 마음이야 얼마나 기쁘시였으랴. 그러나 집이 일제경찰놈들의 삼엄한 감시밑에 있는 조건에서 애정에 사로잡혀 투쟁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큰일을 미루어놓을수는 없는것이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원수님께서 도착하신 그날 저녁 한끼만을 같이하시고 결단성있게 그날밤으로 사랑하는 아드님을 림강으로 떠나보내시였다.

함박눈은 하염없이 내리고 날은 저물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천리를 걸어오신 피로도 아랑곳않으시고 원쑤를 쳐부시고 조국을 광복할 큰뜻을 더욱 굳게 다지시면서 어린 두 동생들을 데리시고 또다시 림강에로의 길에 오르시였다.



19 부녀회원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시는 강반석녀사

조선에서 처음으로 녀성해방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혁명활동을 벌려나가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

어머님께서는 부녀회를 조직하시고 그 조직을 넓혀나가시였다. 1928년 봄, 백산지구부녀회 회장으로 사업하시면서부터 강반석어머님께서는 혁명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밤마다 부녀회원들에게 우리가 고생하는것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억압과 착취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녀성들도 힘을 합쳐 원쑤놈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실로 어머님께서는 조선녀성들이 있는 부락이라면 산을 넘고 강을 건느시였으며 밤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여 그들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성스러운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20 부녀회원들에게 지하공작임무를 주시는 강반석녀사

하늘땅이 얼어붙는 거치른 이국땅에서 하늘땅보다 더 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얼어붙은 강산도 녹일 불타는 혁명적열정을 지니시고 몸바쳐싸워나가시는 강반석어머님, 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간곡한 당부를 안고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는 부녀회원의 가슴은 오히려 후덥다.



21 안도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그이의 전우들의 석방운동을 조직지도하시는 강반석녀사

증오로 번개치는 강반석어머님의 눈길 앞에서 혁명의 원쑤들은 겁에 질려 뒤걸음친다. 어머님의 우뢰같은 규탄의 목소리가 안도 감옥을 들었다놓으신다.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시였던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안도에서 수많은 부녀회원들과 군중들을 조직동원하시여 대중적인 항의투쟁을 벌리심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그이께 충직한 혁명가들을 석방시키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다.



22 혁명가의 어머니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는 일찌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시였으며 그이와 그이의 전우들을 위하여 한몸의 위험이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였다.

한번은 수령님께서 4～5명의 동지들과 함께 무송에서 적들의 삼엄한 경계속에 드신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사태에서 속히 벗어나시자니 무기가 부족하시였다.

모든것을 혁명에 바치시는 고귀한 혁명정신과 희생정신을 지니시였던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놈소 말리허로 가시여 탄알을 재운 총을 소고기갈피속에 넣어이고 한달음으로 돌아오시였다.



23 소사하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의하여 창건된 항일유격대에 입대한 대원들을 만나보시며 그들을 고무격려하시는 강반석녀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첫 무장대오를 조직하신 1932년 봄은 봄우뢰가 3천리강산을 진동시킨 장엄한 력사의 봄이였다.

1932년 4월 25일, 수령님께서는 드디여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온 누리에 선포하시였다.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셨던 강반석녀사께서도 그이의 팔에 의지하시여 항일유격대 대원들을 만나보러 오셨으며 그들의 앞길에 빛나는 승리가 있을것을 열렬히 축원하시였다.

끌끌한 유격대원들속에는 강반석녀사께서 로비를 주어보낸 청년도 있었고 길량식을 장만해준 사람도 있었다. 무송과 안도에서 녀사의 지도를 받아가며 공청사업을 한 동무도, 야학선생을 하던 청년도 있었다.

모두 강반석녀사께 신세를 끼친 청년들이였고 수령님을 따라 풍랑을 헤쳐온 조선의 아들들이였다.



24　풍산군 파발리에 있던 일제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시는 김형권동지

비운에 싸인 조국땅에 멸적의 총소리가 울렸다. 원쑤들은 질겁하였으나 인민들은 가슴마다 투지를 안았다. 때는 1930년 8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삼촌이시며 열렬한 반일혁명투사이신 불굴의 공산주의자 김형권동지께서 수령님의 지시에 따라 그이께서 조직하신 조선혁명군의 한 소조를 인솔하시고 국내깊이에 진출하시여 풍산군 파발리의 일제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시고 원쑤놈들에게 분노의 복수탄을 안기셨던것이다.



25　공청원들을 항일유격대에 입대시키시는 김철주동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의 항일유격대오에 공청원들을 입대시키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원수님의 첫동생 김철주동지.

백두령봉에서 빛나는 태양의 빛을 안고 하늘에도 밀림에도 약동하는 새 희망, 큰 기쁨, 불타는 충성심이 넘쳐흐른다.



26 《무지개잡이》

멀리 지평선 한끝에 뿌리박고 아롱아롱한 색동다리를 놓으며 저 하늘끝까지 뻗어내린 무지개를 잡으시려고 만경봉 소나무에 높이높이 오르신 어린 시절의 **김일성**원수님.

무지개비낀 조국의 산천도 아름답지만 무지개를 잡으시려고 키 높은 소나무에 오르시여 창공에 나래펴듯 손을 활짝 뻗치시는 어리신 원수님의 천진란만하신 꿈은 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신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웅대한 기상과 높은 뜻은 그이께서 네살, 다섯살밖에 되시지 않으시던 그때에 벌써 이렇게 나래치며 자라고계시였다.



27 집안일을 도우시는 어린 시절의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하루종일 밭에서 고된 일을 하시는 할아버님과 어머님의 일손을 스스로 부지런히 도와나서시였다.

인민의 위대한 수령! 근로하는 인민의 참된 아들로서의 김일성원수님의 비범하신 성품은 벌써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향기를 풍기며 무럭무럭 자라가시였다.



28 일제경찰에게 항거하시는 어머님의 강의하고도 억센 투지를 목격하시는 어린 시절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1917년 가을, 김형직선생님께서《조선국민회사건》으로 일제경찰에 체포되여가신후 일제경찰놈들은 또다시 말을 타고 달려와서 선생님의 집안팎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때 강반석녀사께서는 조금도 당황하시거나 주저하시는 기색이 없이 증오에 찬 눈으로 놈들을 쏘아보시며 완강히 대항해나서시였다.

나어린 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시고 평시에는 그렇게도 인자하시던 어머님께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그처럼 견결하시고 강의하신분이시였음을 깊이 느끼시였다.



29 《그네터》에서 어머님의 교양을 받으시는 어린 시절의 **김일성**원수님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아버님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제원쑤놈들에게 체포되신 1917년 가을, 그해따라 류달리 락엽도 한산하게 흩날리던 가을도 가고 눈보라 사납게 기승을 부리던 겨울도 저물어 이듬해엔 어김없이 새 봄이 찾아왔건만 대동강얼음이 다 풀리고 나무잎이 푸르러 새 봄이 지나도록 아버님께서는 돌아오시지 않았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원수님께서 아버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가시던 어느 달밝은 밤, 만경대고향집 뒤동산기슭의 《그네터》에서 어머님 강반석녀사께서는 어리신 원수님을 무릎에 앉히시고 어서 커서 아버지의 원쑤를 꼭 갚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네터》의 달밤, 그것은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피타는 증오의 밤, 멸적의 각오로 타끓는 불타는 맹세의 밤이였다.



30 《군함바위》

대자연의 품속에 기묘하게 우뚝솟은 만경대의 《군함바위》! 망망 대해를 헤가르며 원쑤치러 가는 정의의 함대인가, 창창한 하늘 흰구름을 배경으로 푸른 잔디밭을 미끄러지는듯.

일제침략자들을 한줌에 걸어쥐고 쥐락펴락하시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웅대한 지략과 용맹, 담대한 기백과 슬기가 움튼 만경대의 《군함바위》는 어린 시절의 김일성원수님의 감명깊은 이야기와 더불어 아름다운 노래되여 길이 전하리.



31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도우시는 어린 시절의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아버님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에서 깊은 충동을 받으시는 한편 아버님으로부터 부단한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면서 실지투쟁을 통하여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시였고 조선혁명에 몸바쳐 싸우실 굳센 의지를 키워나가시였다.



32 아버님의 비밀통신련락임무를 수행하시는 어린 시절의 **김일성원수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시면서 중강, 림강, 팔도구 등지를 거점으로 국내와 국외의 혁명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시던 아버님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힘껏 도우시는 김일성원수님! 부모님슬하에서 흔히 응석을 부리며 자랄 어린 나이에 벌써 투쟁의 보람을 심장으로 깊이 느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나서신다는것은 참으로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33 배움의 천리길을 떠나시는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팔도구에서 4년제소학교를 마치시는 해였다. 이무렵 아드님의 장래와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군 하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강반석녀사와 의논하신 끝에 마침내 어린 원수님을 조선에 내보내시기로 하시였다.

아버님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아래서 우리의것을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알며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찾으시고야 말리라는 고결한 뜻을 더한층 굳게 해오시던 원수님께서는 조선에 가야한다는 아버님의 높은 뜻을 선뜻 받아들이시였다. 그것은 또한 원수님께서도 바라시던바였다.

이리하여 열두살 갓잡히신 어리신 원수님께서는 설한풍 휘몰아치는 1923년 정월 그믐날 홀로 팔도구를 떠나시여 만경대로 향하시였다.

이 길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인 선진사상과 민족자주정신이 펼쳐준 장엄한 투쟁의 새 아침에로 뻗어가는 시련의 길, 영광의 길, 조국광복의 서광이 마련된 뜻깊은 력사의 새벽길이였다.



34 배움의 천리길

1923년 1월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말과 력사와 지리, 조국의 현실을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열두살 나이에 혼자몸으로 팔도구에서 만경대에 이르는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시였다.

맵짠 바람이 눈가루를 뿌려대는 추운 겨울날 수령님께서는 높은 산, 넓은 들의 험준한 천리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일제의 야만적인 억압과 착취로 하여 원한과 통분속에 잠겨있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시였다.

산천초목도 원한속에 치를 떠는 조국의 통탄할 현실을 직접 목격하시면서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을 끝없이 미워하시였고 어서 커서 아버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는 혁명의 길에 나서리라 굳게 마음 다지시였다.



35　천리길을 걸으시여

눈보라 휘몰아치는 천리길을 돌파하시여 그리운 고향 만경대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이제 열두살밖에 안되시는 어리신 맏손자님을 뜻밖에 맞으신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한량없이 기쁘셨지만 또한 놀라움도 크시였다.

《아니, 네가 정말 혼자 왔단말이냐 ?! 너의 아버지가 범보다 더한 사람이구나》 할머님께서는 혀를 차며 말씀하시였다.

이때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참 할머님도…내 나이 어리다고 두나라 지경이야 혼자 못다니겠어요.》라고 말씀 올리시면서 밝은 웃음을 지으시였다.

이 말씀에 조부모님께서는 저으기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할머님께서는 그렇듯 억세고 름름하게 자라신 손자님을 뜨겁게 품에 안으시고 그지없이 대견해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그래 신통히 너두 통이 큰 너희 애비를 닮았구나! 네가 아마 몇해후면 백두산에 걸터앉아 동해바다에다 대고 발을 씻자고 할게다!》



36 만경대의 《학습터》에서 공부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창덕학교시절의 배움의 나날에 만경대의 《학습터》에서 그날 배운 학과 내용을 동무들에게 가르쳐주시며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고 그들을 힘있게 깨우쳐주실 때 어린 동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마다엔 정기가 넘쳐흐른다. 그럴때면 새들도 노래를 멈추고 그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듯.



37 만경봉에서 학습에 열중하고계시는 창덕학교시절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리신 원수님의 가슴속에 세차게 타오른 학습열의, 그것은 아버님의 간곡한 말씀을 명심하고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보시면서 다지신 맹세를 기어이 실천하시려는 굳은 의지와 피타는 노력의 발현이시였다. 원수님께 있어서 이 배움의 나날은 민족재생의 길을 찾으며 조국땅에 광복의 서광을 안아올 방도를 탐구하시는 뜻깊은 나날이기도 하시였다.



38 아버님 김형직선생님께서 또다시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복수의 주먹을 굳게 틀어쥐시며 혁명의 길에 나서실것을 동무들앞에서 결의다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조선인민을 구원하실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멀리 북녘하늘을 바라보시는 원수님의 눈앞에 조선혁명의 새아침을 예고하는 찬연한 서광이 비껴오고있었다.

이제 원수님께서 가셔야 할 혁명의 길은 천리던가 만리던가. 그 길은 영광의 포평나루를 거쳐 백두의 밀림에 뻗어있었다. 그 길은 해방된 조국산천에, 대를 두고 노래로 전하여질 만경대의 갈림길에, 천리마 나래치는 주체의 조국, 우리의 위대한 사회주의공업강국에 잇닿아있었다.



39 열네살 때에 홀몸으로 천리길을 떠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수령님께서는 아버님 김형직선생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비통한 소식을 들으시고 철천지원쑤 일제놈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시며 1925년초에 고향 만경대를 떠나시였다.

마을에 아침연기가 자욱할 무렵에 그이께서는 리별을 서러워하시는 할아버님, 할머님과 삼촌내외에게 공손한 인사를 남기시고 길에 나서시였다.

평양가는 큰 길에 나서신 수령님께서는 움직일줄 모르고 지켜보시는 할아버님과 할머님, 삼촌내외를 돌아보시고 모자를 벗어 흔드시였다. 그러시고는 마치도 지난날의 갖가지 추억이 깃든 고향산천을 온통 뇌리에 그려넣으시려는듯 한동안 감개무량한 눈길로 정든 마을과 아름다운 동산을 더듬어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열두살 때 만경대로 걸어나오신 천리길이 애국의 큰 뜻을 키워준 배움의 길이였다면 팔도구를 향하여 또다시 오르신 이 길은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로 나아가시는 혁명의 길이였다.



40 기어코 내 나라를 찾으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원수님께서 열네살되시던 때인 1925년 초.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시였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받으신 원수님께서는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고향 만경대를 떠나시였다. 천리를 걸으시여 10여일만에 포평에 이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국경의 강 압록강을 건느시면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거연히 서시여 멀어져가는 고국산천을 돌아보시였다. 눈서리에 파묻힌 조국의 고달픔과 나라없는 민족의 슬픔을 통감하시는 김일성원수님의 가슴은 일제를 쳐부시고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야 말 굳은 결의로 하여 뜨겁게 벅차오르셨다.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사나운 눈바람 헤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떠나시며 다지신 그 비장한 결심은 조선의 결심, 조선의 맹세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미구에 무겁게 드리운 어둠을 몰아내고 짓밟힌 조국땅에 해빛 찬란한 광복의 아침을 안아올 위대한 력사의 서곡이였다.



41 《화성의숙》에서 맑스—레닌주의학습에 열중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1926년 여름, 화전현에 있는 《화성의숙》에 입학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맑스—레닌주의출판물들을 비밀리에 탐독하시는 행정을 통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동경과 지향을 더욱 뜨겁게 무르익히시였고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과 투쟁방법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 바로 그 길만이 민족해방을 위한 진정한 길임을 더욱 깊이 확신하시였다.



42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1926년 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출현은 민족의 크나큰 경사였으며 조선의 영광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위대한 서막이였으며 실로 이때로부터 혁명의 영재이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원수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가 시작되였다.



43　학생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학습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1927년 봄에 이미 결심하신대로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길림시로 옮기신 수령님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깊이 연구하시는 한편 청년들과 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속에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시기 위하여 길림육문중학교와 시내의 각 학교들에 독서회 등 맑스—레닌주의연구소조를 조직하시고 손수 그를 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청년학생들속에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심에 있어서 토론회, 웅변대회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적용하시였다.

이리하여 수령님의 지도밑에 수많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자라났고 혁명의 핵심대오가 꾸려져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길림시내의 청년학생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신 경험에 기초하시여 광범한 지역들에 맑스—레닌주의연구소조들을 조직하시고 군중들에게 맑스—레닌주의선진사상을 보급하는데 온갖 정력을 기울이시였다.



44 **혁명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시고 몸소 키우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비롯한 선진적인 청년들을 광활한 지역에 파견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떠나가는 청년들의 앞길은 멀고 또 험해도 그들의 손을 억세게 잡으시고 흔들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 그이의 간곡한 가르치심과 빛나는 예지는 언제나 청년들의 앞길에 따사로운 해빛으로 넘쳐있었다.



45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니실 때 반동교원들과 반동군벌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에로 청년학생들을 궐기시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수령님의 지도밑에 전교학생들이 반동군벌과 결탁한 반동교원들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났던 첫투쟁에서의 귀중한 승리는 그들 전체 청년학생들에게 혁명조직과 단결의 위력을 깨우쳐주었으며 드높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46 **청년학생들의 앞장에 서시여 일제의 만주침략을 위한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조직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수령님께서는 1928년 10월 길림시내의 전체 청년학생들을 일제의 만주침략을 위한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시위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고 몸소 투쟁대오의 앞장에 서시였다. 이해 11월까지 거의 매일 계속된 이 시위투쟁은 조선과 중국 각지의 광범한 군중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성원을 받았으며 조선내에까지 널리 알려져 인민들을 끝없이 격동시켰다.



47 길림에서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을 중심으로 초기혁명활동을 벌리시던 투쟁의 나날에 이미 력사무대에서 버림을 받았으나 의연히 반일력량의 결속을 방해하는 완고한 부르죠아민족주의상층들의 주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시면서 그들의 분렬책동과 반혁명적 행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시였다.



48　카륜회의에서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을 제시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30년 여름 카륜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성원들의 회의를 여시고 오래전부터 구상하여오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조선공산당 창건을 위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에서 우리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관한 문제, 그 실현방도에 대한 문제 등 조선혁명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원칙적인 의의를 가지는 전략전술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높이 드신 이 위대한 로선은 우리 인민에게 희망과 재생의 길, 조국의 해방과 독립의 길을 비쳐준 혁명의 찬연한 홰불이였으며 모든 대륙의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준 불멸의 등대였다.



49 어머님으로부터 아버님의 열렬한 애국사상과 조국광복의 큰 뜻이 담겨진 무기를 전달받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혁명군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실 때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귀중히 간수해두셨던 두자루의 권총을 **김일성**원수님앞에 내놓으시였다.

두자루의 권총! 이것은 아버님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드님께 남기신 귀중한 무기였다.

《…내가 쓰던 권총은 잘 보관했다가 성주가 달라고 할 때 주시오. 그러면 내 뒤를 이어 내가 못다한 일을 계속할것이요.…》

정녕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뜨거운 심장의 체온이 간직된 이 두자루의 권총엔 원쑤 일제를 무찌르고 반드시 나라를 독립시킬것을 바라는 혁명의 간곡한 당부가 뜨겁게 숨쉬고있고 대를 이어 혁명을 빛나게 계승할 확고한 믿음이 맥박치고있는것이다.

아버님의 높은 뜻을 이어 반드시 조국광복을 이룩할것을 다시금 굳게 다짐하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 귀중한 혁명의 총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혁명의 무장을 마련하는 투쟁에 힘차게 나서시였다. 두자루의 혁명의 총은 천자루, 만자루의 무장을 갖추게 하였다.



50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를 국내에 파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1930년 여름 이통현 고유수에서 항일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 및 반군사 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여러 소조들을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지대에 파견하시여 인민들을 항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우시고 무장대오조직의 골간을 키우시는 한편 항일무장투쟁준비를 위한 무장소조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51 농촌혁명화를 위하여

1930년 여름 이통현 고유수에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의 활동을 조직지도하시는 한편 자신이 직접 혁명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시기 위하여 장춘, 이통, 회덕현 등지의 농촌들에 나가시여 이 일대를 혁명화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여러 농촌들에 학교를 세우시고 새세대들에게 혁명교육을 실시하시면서 토론회, 강연회, 정치강습 등을 조직하시였고 혁명적출판물을 발행하시였으며 예술선전대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정치사업을 진행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높이시면서 점차 소년, 청년, 부녀, 농민들을 계층별에 따라 반일대중단체들에 광범히 묶어세우심으로써 도처에 혁명적인 농촌을 꾸려놓으시였다.



52 혁명적출판물의 발간을 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시는 곳마다는 영광찬 투쟁의 무대였고 하시는 일마다는 빛나는 혁명투쟁이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핵심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시기 위하여 몸소 장춘, 이통, 회덕현 등지의 농촌에 나가시여 이 일대를 혁명화하는 모범을 창조하시던 눈부신 투쟁의 나날에 신문 《볼쉐위크》와 잡지 《농우》를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시여 광범한 대중을 반일애국사상과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교양하시면서 혁명의 믿음직한 골간부대를 육성해나가시였다.



53 진명학교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시기 위하여 카룬에서는 진명학교, 고유수에는 삼광학교를 세우시였으며 오가자에서는 삼성소학교를 운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수많은 농촌마을들에 학교를 세우시고 혁명교육을 실시하시면서 지덕체를 갖춘 조선혁명의 밝은 미래를 키우시던 그 환희로운 투쟁의 나날에 인민적인 무료의무교육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54 진명학교 개교식날 신입생들을 맞이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전도에 대한 크나큰 포부를 안으시고 장춘현 카륜에 오시여 몸소 진명학교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온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한편 밤이면 야학을 통하여 청장년들과 부녀자들을 교육교양하시였다. 그리고 야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자본가와 지주의 착취적본성과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을 광복해야 한다는것 등을 내용으로 한 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시였다.



55 소년탐험대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카륜 진명학교에 소년단을, 고유수 삼광학교에 소년탐험대를, 오가자 삼성소학교에 소년선봉대와 소년탐험대를 조직하시고 소년들에게 반일애국사상을 키워주시는 한편 군사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아래서 머리우에 높이 트인 하늘과 같이, 아득히 지평선을 두른 끝없는 대지와 같이 그이의 폭넓고 원대한 뜻으로 교양된 학생청소년들은 모두다 애국의 정열로 불타는 열렬한 혁명간부로 자라났다.



56 지하조직의 선을 이으시기 위하여 몸소 광활한 지대에로 떠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멀고도 준엄한 영광에 찬 혁명의 새벽길을 몸소 헤쳐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몸바쳐나서신 때로부터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기전까지 그이께서 몸소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혁명의 새벽길을 승리에로 열어가시던 나날의 빛나는 초기혁명활동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찬연한 승리를 아로새긴 투쟁이였으며 간고하고도 심각한 내용으로 충만된 반제혁명투쟁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에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을 완성하시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이 시기에 로동계급의 수령들, 참된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높은 덕성과 숭고한 풍모를 구현하시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원형을 이룩하시였으며 혁명의 위대한 태양으로 빛을 뿌리시였다.



57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활동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1930년 8월, 도시혁명조직들에 대한 일제와 반동군벌들의 탄압책동에 대처하여 도시혁명조직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다시 농촌으로, 한 농촌에서 또 다른 농촌으로 자리를 옮겨가시면서 조선혁명군의 활동을 지도하시여 농촌의 혁명진지를 확대강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피로도 휴식도 모르시였으며 낮과 밤이 따로 없으시였다. 낮에는 밭에서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시면서 그들을 교양하시고 지도하시였으며 밤이면 또 밤대로 혁명적출판물을 간행하시거나 각지에 파견하신 조선혁명군 소조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먼길을 떠나시군 하시였다.



58 오가자 삼성소학교운동장에서 10월혁명 13돐에 즈음하여 연설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이날 오가자마을은 아침부터 명절분위기로 들끓었으며 50～60리밖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어 삼성소학교운동장은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로 차고넘치였다. 학교정문에는 솔문이 세워지고 축등들이 걸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경축대회연단에 오르시여 10월혁명의 력사적의의를 지적하신후 일본제국주의는 강대한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멸망할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며 조국땅에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어떤 난관과 시련도 박차고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의 손으로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연설이 끝나자 우렁찬 박수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수령님의 예리하고 명철하신 정세판단과 혁명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그이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앞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탄복하여마지않았다.



59 **력사적인 송강회의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모두다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와 싸울것을 열렬히 호소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9. 18사변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급변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조선혁명이 나아갈 새로운 진로를 밝혀주시기 위하여 1931년 가을에 송강회의를, 같은 해 11월에 명월구회의를 여시였다.

회의들에서 밝히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천재적인 방침들은 무장투쟁을 벌림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공산주의자들의 강령적지침으로, 항일유격대의 창건준비를 다그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60 무장대오조직을 위하여 청년학생들의 사격훈련을 몸소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월구회의이후 항일유격대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과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시였으며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새날이, 조선혁명의 빛나는 새 아침이 밝아오고있었다.



61　1932년 4월 25일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인류력사에 금문자로 새겨진 1932년 4월 2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몸소 여러해동안 키우신 조선혁명군대원들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항일유격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관철하는 로동계급의 혁명무력이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민족적독립, 근로인민의 진정한 자유와 계급적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였다.

항일유격대는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선동하며 조직동원하는 정치적부대였으며 세계혁명위업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무한히 충실한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였다.

정녕 항일유격대의 창건은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새롭고 위대한 력사적시기를 열어놓았으며 우리 인민에게 조국의 광복과 민족재생의 서광을 비쳐주었다.



62 유격근거지인민들 앞에서 연설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33년 봄에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내놓으시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의 전투를 조직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정권기관에서 일하는 일군들에게 강습을 주시는 한편 몸소 여러 구역에 나가시여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는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33년 여름, 왕청현 사수평에서 인민혁명정부 구위원회대표를 선거하는 회의에 참가하시여 인민혁명정부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근거지의 모든 간부들과 인민들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신후에는 곧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는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는 사업을 조직령도하시였다.



63 왕청유격근거지에서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대인 두만강연안에 조선혁명의 책원지이며 강력한 보루인 해방지구형태의 완전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정권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곳 근거지에서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는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시였다.



64 왕청현 공청확대회의를 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1933년 3월, 왕청현공청확대회의에 친히 참석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청년공작원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당시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중심임무를 밝히시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공청조직사업, 선전선동과 교양사업 및 학생소년사업 등 공청사업전반에 대한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사업에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65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

１９３３년 초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항일유격대원들을 이끄시고 두만강기슭에 있는 량수천자부근의 어느 한 농막앞에서 잠시 휴식하시던 어느날의 일이다.

수령님께서는 행군도중 휴식하는 짧시간을 리용하시여 몸소 농막집마당의 나무를 패시였다. 그이의 모범에 고무된 대원들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고 집주위의 눈을 치며 물을 길어왔다.

나무를 패신분이 다름아닌 김일성원수님이심을 알게 된 집주인은《…사령관께서 그런 일을 하시다니…》하면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이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랍니다. 인민들이 다 하는 일을 내라고 어째 못하겠습니까!》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렇듯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인민의 수령이시다.



66 반일공동전선형성을 위하여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반일부대사령부와 담판을 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일찌기 항일유격대창건을 준비하시던 시기에 중국인반일부대와의 반제공동전선형성을 위한 담판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시고 린접국가의 민족주의무장력량인 반일부대를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 인입하는데서 시초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33년 6월 또다시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반일부대의 사령인 오의성을 찾아가시여 담판을 하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아량있는 포용력, 정연한 론리와 강한 설득력에 감복한 오의성은 마침내 반제공동전선형성에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반일부대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은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되였다.



67 동녕현성진공전투를 직접 지휘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중국인반일부대 사령 오의성과의 담판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신후 1933년 6월, 반제공동전선의 기치밑에 첫 대규모적인 련합작전인 동녕현성진공전투를 조직하시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다.

수령님께서 직접 지휘하신 동녕현성진공전투는 처음으로 중국인반일부대와 반제공동전선을 취한 정치적 및 군사전략적 의의가 큰 전투였다.

동녕현성진공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반일부대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은 실제적인 반일공동투쟁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공고발전되여갔다.



68 원쑤를 무찔러 이기시고 유격근거지에 개선하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집요한 《위공작전》으로부터 유격근거지를 방위함에 있어서 수적으로나 무장장비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과의 정면대결만을 고집하는 군사모험주의자들의 무모한 주장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적극적인 방어전과 기동적인 적후방교란작전, 분산과 집중을 배합하는 탁월한 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실전에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전투마다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시였다.



69 **류벌공들속에 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에 계실 때 류벌로동자들과 목재소의 로동자들을 자주 만나시여 그들의 처지와 생활을 깊이 료해하시고 함께 의논해주시는 한편 그들을 부단히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혁명의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려나가시였다.



70 아동단원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두만강연안에 창설된 유격근거지에 아동단을 조직하시고 그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으며 지덕체를 겸비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를 진행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근거지의 제일 좋은 집을 아동단학교로 쓰게 하시였고 학용품을 공급하여주시였으며 아동단원들을 무료로 공부시키시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의 후비대를 튼튼히 키우는것을 나라의 흥망과 혁명의 전도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여기시면서 친어버이의 사랑으로 조국과 혁명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어린이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며 키워주시였던것이다.



71 혁명의 꽃봉오리, 아동단원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간고하고도 준엄한 근거지방위전투의 불길속에서도 어버이 수령님의 넓으신 사랑의 품에 안긴 아동단원들에게는 부족한것이 없었고 부러울것이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의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문제로부터 아동단생활과 연예활동에 이르기까지 몸소 보살펴주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는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자주 아동단학교를 찾아주시였고 아동단지도원들에게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예로운 일인가를 깨우쳐주시였다.



72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원수님**

겨레들의 피타는 신음소리 구천에 사무쳐 지새일줄 모르던 그 비운의 밤에 3천만의 분노를 총창에 비껴드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여 3천리에 려명을 부르시던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원수님!

그이께서는 장성강화된 항일유격부대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지휘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무장투쟁을 더욱 발전시키시기 위하여 1934년 3월, 항일유격대의 조직체계를 개편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을 편성하시였다.



73 요영구회의를 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35년초, 북만원정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혹한을 만나시여 몸이 몹시 쇠약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혁명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시기 위하여 이해 2월말～3월초에 다홍왜회의와 같은 해 3월하순에 요영구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다홍왜 및 요영구 회의들에서 반《민생단》투쟁의 미명밑에 조선혁명에 엄중한 해독을 끼친 대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인 사대주의자,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신랄히 폭로분쇄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통일단결을 수호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요영구회의에서 두만강연안에 창설되였던 유격근거지를 해산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조선과 남북만의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갈데 대한 새로운 군사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74 로흑산에서의 승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35년 6월, 동녕현 로흑산에 주둔하고있던 정안군을 소탕하는 전투를 진행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위만군에서 선발된 악질지주, 친일자본가 등 매국노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정안군부대를 령활한 유인매복전술로 섬멸하시고 박격포, 중기관총, 경기관총을 비롯한 수많은 군수물자들을 로획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로흑산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의 사기를 무한히 북돋아주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북만의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기 위한 물질적준비를 더욱 튼튼히 갖추시였다.



75 중대당지부회의를 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1935년 6월, 경애하는 수령님의 지휘밑에 로흑산전투에서 승리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그이의 친솔하에 북만원정의 길에 올랐을 때의 일이다. 그때 조선인민혁명군의 한개 중대는 녕안현 삼도하자부근에 주둔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중대에 몸소 내려오신 수령님께서는 중대의 실정과 대원들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후 중대당지부회의를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중대당지부회의에서 당원들의 생활에 얽혀있던 매듭을 남김없이 풀어주시였으며 모든 당원들의 가슴속 깊이에 위대한 사상과 자각의 씨앗을 심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당원들의 호상관계, 당원과 비당원간의 관계 그리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귀중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이리하여 그후 중대내 생활은 비할바 없이 명랑해지고 더없이 생신한 분위기속에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으며 혁명대렬안에서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76 북만인민들과 담화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어려운 북만원정의 나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인민의 충복으로 교양하시는 한편 북만의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부단히 혁명적영향을 주시였다.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덕성에 무한히 감동된 인민들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정력적으로 일떠섰다.



77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를 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36년 2월에 남호두회의를 여시고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각 부문 사업을 총화하시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장성발전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하여 보고하시였다.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남호두회의는 조선혁명의 전진을 가로막던 좌경기회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 종파분자들,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자들의 반맑스주의적, 반혁명적 주장들과 책동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고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회의였다.



78 경애하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품에 안긴 마안산의 아동단원들

1936년 3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미혼진에서 동강으로 가시던 길에 아동단원들이 마안산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에 들리시였다. 깊은 눈길을 헤치시며 마안산에 들리시여 아동단원들의 밀영부터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래동안 갈라졌던 자식을 만나는 친어버이심정으로 그들을 뜨겁게 품에 안아주시였다. 어린이들은 그이의 품에 안겨 흐느껴울었다. 그때 민족배타주의분자들은 이곳에 있는 아동단원들이 유격투쟁에서 큰 《부담》으로 된다고 하면서 귀찮게 대하며 전혀 돌보아주지 않고 있었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의 비참한 정상에 가슴아파하시며 간고한 싸움의 불길속에서도 쓰시지 않으시고 소중히 건사해오시던 강반석어머님의 심혈이 깃든 돈으로 그들의 옷을 지어주도록 조치를 취하셨으며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어린이들을 견결한 공산주의투사로 길러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데리시고 마안산을 떠나 혁명의 폭풍우속으로 결연히 떠나시였다.



79 《그이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시였다》

반《민생단》투쟁의 후과가 아직도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던 1936년 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미혼진회의를 소집하신후 그 결정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새 사단을 편성하시기 위하여 몸소 무송으로 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억울하게 《민생단》혐의를 받고있던 그곳 100여명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앞에서 《민생단》혐의자 문서보따리를 모조리 불태워버리시고 그들을 모두 부대에 받아들이시였다.

대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넓으신 품에 안긴 재생의 보람찬 감격으로 하여 흐느껴울면서 불타는 충성의 맹세를 굳게 다졌다.



80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작성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피어린 투쟁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손수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 그것은 어둡던 3천리강산에 빛을 주고 망국의 설음에 한숨짓던 겨레들에게 투쟁의 새 앞길을 밝혀준 위대한 주체의 기치,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였다.



81　조국산야에 동이 튼다

이 아침 우리 겨레의 태양이신 만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어두운 남쪽하늘을 바라보시며 짓밟힌 조국강산을 생각하신다.

신음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조국광복의 원대한 구상을 깊이 무르익히신다, 장엄한 조국진군의 작전도를 그리신다.

오, 수령님께서 불패의 무장대오를 이끄시고 피어린 싸움으로 열어오신 영광에 찬 낮과 밤들은 얼마더냐!

자욱마다 빛나는 승리로 다져진 불멸의 위훈을 노래하며 백두밀림은 설레이고 압록강과 두만강은 굽이쳐흐른다.



82 출판사업을 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적출판물들을 창간하시고 출판사업을 지도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자기의 전투적인 사상적기수를 가지게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혁명투쟁에서 참다운 벗을 가지게 되였다.



83 만강에서의 연예공연을 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1936년 여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무송현 만강부락에 며칠동안 머물렀다.

그때 이 만강부락주민의 대부분이 조선사람이라는것을 헤아리신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고무하기 위하여 이 마을에 들리신것이였다.

마을에 들린 부대는 군중정치사업의 일부로 급기야 연극을 비롯한 연예공연을 진행하기로 되였다. 연극각본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36년초에 남호두를 떠나시여 만강에 이르시는 그 어느때보다도 분망하신 몇달동안에 몸소 밤을 세워가시며 쓰신것이였다. 연극은 전2막으로 구성되여있었으며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형상화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공연을 앞두고 시연회에 참가하시여 등장인물들의 연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절찬속에 진행된 만강에서의 연예공연은 이곳 인민들에게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그들의 가슴속에 투쟁의 불씨를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감동된 두 청년이 무대앞으로 뛰여나와 유격대에 입대시켜줄것을 청원하였다. 만강의 밤하늘은 환호와 박수 소리로 오래오래 떠나갈듯 하였다.



84 홍두산 되골령마루에서 조국을 바라보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지금 수령님께서는 포평나루를 건느시던 그날의 맹세를 되새기고계시는가, 아니면 짓밟힌 겨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일제침략자놈들에 대한 무자비한 복수를 생각하고계시는가.

수령님 계시여 어머니—조국은 길이 영생하리라!



85 희샤즈거우밀영에서 소조원들을 국내에로 파견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희샤즈거우밀영지는 조선혁명의 성새이며 강유력한 책원지였던 백두산근거지의 중심밀영지였다. 여기에는 수령님께서 계시던 제1밀영과 그를 중심으로 하여 홍두산주변의 수십리지역에 제2, 제3, 제4밀영들이 설치되여있었다.

희샤즈거우밀영지, 그것은 1930년대 후반기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끈 불멸의 심장이였다.



86　백두산근거지인민들과 상봉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일찌기 백두산근거지창설을 구상하시던 시기부터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비롯한 지하혁명조직들을 조직하시여 군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된 이후시기에도 근거지에 의거하시여 령활한 유격전을 벌리시는 한편 군중정치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을 몸소 지도하시면서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하는 사업과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87 오직 장군님을 믿고

조선인민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나날,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우러러보며 승리의 신심을 굳게 다지고 반일투쟁의 길로 힘차게 달려나왔다.

김일성원수님은 하루고생이 천년맞잡이로 힘겨웁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의 태양이시였고 구원의 별이시였다.

그러기에 인민들은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앞을 다투어 도와나섰다. 그들은 항일유격대에 대한 원호사업이라면 사나운 비바람도 산짐승이 얼어죽는 삼동눈보라도 가리지 않았다.



88 홍두산전투를 지휘하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

1937년초에 들어서면서 일제침략자들은 많은 병력을 집중하여 홍두산방향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였다.

적들은 당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홍두산밀영에 있음을 탐지하고 1937년 2월, 이도강방향으로부터 공격해왔다. 백포로 위장한 5백여명의 적들은 사나운 눈보라를 리용하여 홍두산밀영으로 은밀히 기여들었다. 이때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제2밀영쪽에 나가있었으므로 홍두산밀영에는 사령부보위를 위해 남았던 20여명의 대원밖에 없었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기묘한 유인전술로 적들을 골짜기에 몰아넣으시고 그 대부분을 소멸하시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수령님께서는 살아남은 적들의 숙영지에 습격조원들을 보내시였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제놈들끼리 총질을 하다가 일부는 도망쳤으나 그놈들마저 사령부의 안전을 념려하여 제2밀영쪽에서 이곳으로 달려오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에 의하여 몰살당하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공격하려고 덤벼든 적들은 전멸되고말았다.



89 조국으로 진군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1937년 6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제의 야수적인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조선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주시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위풍당당하게 국내에로 진출하시였다.



90 보천보의 총소리

력사적인 서강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조국진군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원정대를 거느리시고 적들이 《금성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국경경비진》을 돌파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37년 6월 4일 오후, 곤장덕수림속에서 지휘관들을 모이게 하시고 각 구분대에 전투임무를 내리시였으며 지휘처를 가림천가의 황철나무밑으로 정하시였다.

보천보에 도사린 일제침략자들에게 복수의 죽음을 주고 조국의 머리우에 무겁게 드리운 검은 구름을 불사를 혁명의 홰불이 휘황찬란하게 타오를 장엄한 력사의 시각이 한초한초 다가오고있었다.

밤 10시! 수령님께서는 한방의 신호총소리로 공격개시를 알리시였다.

그 총소리는 깊이 잠든 조국강산을 뒤흔들며 짓눌린 인민들의 가슴속에 재생의 열망과 투쟁의 환희를 불러일으켰다.



91 보천보의 밤하늘에 홰불을 높이 올리시고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강도 일본제국주의가 이 땅을 짓밟으며 대륙깊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을 때 놈들의 피비린 야망을 꺾어버리고 이 강토를 짓누른 암흑을 사르며 황황 타올라 민족재생의 서광을 비쳐준 광복의 홰불!

불타는 보천보가 그대로 하나의 홰불이 되여 온 강산을 비치는 듯!

솟구치는 화광에 격문들이 날리는데 터져오르는 환성, 이글거리는 눈동자들…바다처럼 설레는 격동한 군중들의 머리우에 태양과 같이 빛을 뿌리시여 손을 높이 치여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짓밟힌 인민들에게 혁명의 서광을 비쳐주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강력히 추동한 보천보의 홰불은 세기를 두고 영원히 빛나리라!



92 간삼봉전투를 지휘하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

1937년 6월 29일, 희샤즈거우에 집결된 조선인민혁명군 련합부대를 거느리시고 간삼봉계선으로 진출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 이튿날 새벽 보천보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짙은 안개를 리용하여 세개 방향으로 포위진을 치면서 달려든 2천 5백여명의 적의 대부대에 대한 강력한 반격전을 조직하시였다.

수령님의 탁월한 전투지휘와 령활한 전술에 의하여 적은 1,500여명이나 녹아나고 놈들의 《대대적인 추격작전》은 완전히 파탄되고말았다.

수령님께서는 간삼봉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국내진공작전의 위대한 성과를 더욱 튼튼히 다지시였다.



93　**1937년 조선인민혁명군지휘관 및 병사대회에서 새로운 투쟁방침을 제시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37년 8월에 있은 조선인민혁명군지휘관 및 병사대회에서와 중일전쟁발발과 관련하여 같은 해 9월에 조선인민에게 보내신 호소문에서 조성된 정세를 분석하시고 새로운 과학적인 투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선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렬을 확대강화하고 일제의 후방 특히 국경일대에서 무장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써 놈들의 배후를 교란하고 더욱 큰 군사정치적타격을 가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정치공작을 더욱 진공적으로 전개할데 대한 과업을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에 배합하여 전인민적반일항전을 준비할데 대한 전투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새로운 투쟁방침은 주체적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복잡한 정세를 조선혁명에 유리하게 전변시켜 조국해방을 앞당기기 위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투쟁방침이였으며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에 타격을 줌으로써 린접국가들의 혁명을 적극 지원하며 세계혁명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이였다.



94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하여 강의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좌경모험주의자들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발전에 조성된 뜻하지 않은 장애와 난국을 극복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1937년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집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를 확고히 세울데 대한 원칙적립장을 밝히시였으며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하게 정확한 투쟁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집필하신 이 고전적로작은 실로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과업을 가장 정확하게 명시한 강령적문헌이며 좌경모험주의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밝혀준 지도적지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37년말～1938년초에 걸쳐 몽강현 마당거우밀영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로작들을 가지고 집중적인 군정학습을 조직진행하시였다.



95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1938년 4월 27일 새벽,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적《토벌대》의 중요거점의 하나인 림강현 6도구의 적을 소탕하시고 날이 훤히 밝아올 무렵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로 하여금 람의탕부락앞산인 라즈거우강상에 올라 전투준비를 면밀히 갖추게 하시였다.

동녘하늘에 해살이 뻗치자 집요하게 달려드는 적들을 물리치는 치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럴 때 대부분 신입대원들인 7～8명의 대원들이 배치되여있는 지휘부의 좌측 동북간릉선으로 적기병 수백명이 불의에 달려들고있다는 긴급한 보고를 받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곧 그곳으로 가시여 웃음어린 눈길로 대원들을 고무하여주시며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원쑤들을 쓸어눕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가렬한 전투의 진두에 서신것은 이때가 비로소 처음이 아니시였다.

실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전투의 시련속에서 뜨거운 어버이사랑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유격대원들을 보살피시며 믿음직한 혁명전사로 그들을 키워주시였던것이다.



96 남패자회의를 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새롭게 앙양시키기 위하여 동남만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몽강현남패자에 집결시키시고 1938년 11월에 력사적인 남패자회의를 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남패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를 짓부시고 전반적인 조선혁명을 새롭게 앙양시키기 위한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그후 실천투쟁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97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이끄시고 남패자를 떠나 압록강연안 국경지대에로 진출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원수님

사나운 눈보라, 허리를 치는 생눈길, 사정없이 위협하는 기아와 질병, 끊임없이 달려드는 수천수만의 일제침략자들의 무리…

하루에도 십여차례씩 치렬한 전투를 벌리며 강행군을 계속한 이 100여일의 고난의 행군은 이루 형용할수 없이 간고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대오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은 고난의 행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했다.



98 어버이의 사랑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항일유격대원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하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힘겨워하는 대원들의 총과 배낭을 몸소 메여주시였고 신발도 고쳐주시였으며 자신께 차례지는 얼마 안되는 식량마저 대원들에게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짧은 휴식의 한때에도 피로를 푸시지 않으시고 대원들을 육친의 정으로 돌봐주시였다.



99 어버이품에 안기여

남패자에서 압록강연안 국경지대에 이르는 100여일의 고난의 행군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일편단심 해바라기처럼 따른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불타는 충실성에 대한 빛나는 영웅서사시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련대장 오중흡동지는 허리까지 치는 생눈길을 헤치며 부대의 앞길을 열었고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추격하는 적들을 유인하는 과감한 싸움에서 지칠줄 몰랐다.

드디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할 불타는 충성의 결의를 안고 원쑤들을 멀리 유인하여 족쳐버린 오중흡련대장을 만나시여 뜨겁게 품에 안으시였다. 오중흡동지의 두볼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수령님께서도 오중흡동지의 등을 쓰다듬어주시면서 한동안 말씀을 못하시였다.

《동무들 장하오! 동무들이야말로 혁명의 영웅들이요. …》

수령님께서는 오중흡동지를 비롯한 7련대성원들을 이렇게 높이 치하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치하의 말씀—혁명전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예, 더 큰 자랑 또 어데 있으랴!



100 북대정자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조국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때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 조국진군의 력사적인 시각을 눈앞에 둔 1939년의 승리의 새봄이였다.

수령님을 따라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하고 강철로 더욱 튼튼히 다져진 불패의 혁명적무장대오 조선인민혁명군이 나아갈 앞길에는 이 봄과 같이 아름다운 약동하는 희망과 빛나는 승리만이 약속되여있었다.



101　　조국에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친솔하시고 청봉, 건창, 베개봉,삼지연을 거쳐 무산지구에로 진출하시여 신사동, 신개척, 대홍단 등지에서 적을 무찌르시고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신념을 안겨주는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산지구전투를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섬멸》한다고 호언장담하던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시고 혁명조직을 복구확대하시였으며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념과 새 힘을 북돋아주시였다.



102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압록강을 건너 또다시 조국땅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아름다운 조국산천은 기쁨에 설레였다. 실로 온 조국강산이 그대로 떨기떨기 불타는 진달래꽃이 되여 수령님을 반겨 환호하는 듯 싶었다.

때는 1939년 5월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또다시 조국진군의 길에 오른 대원들도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었다.



103 청봉의 아침

북대정자회의에서 무산지구로 진출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에로 진군하기 위한 대규모의 작전을 준비하신후 1939년 5월 18일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들어서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또다시 조국땅을 밟은 대원들은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었다.

수령님의 명령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그렇게도 그립던 조국땅 청봉에서 처음으로 숙영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부대가 청봉기슭에 이르렀을 때 몸소 청봉마루에 오르시여 적정과 지형을 자세히 살피신 다음 숙영장소를 정해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수령님의 지시에 따라 나무껍질을 벗기고 그 우에 조국해방을 위한 싸움에 한결같이 일떠설것을 호소하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구호들을 썼다.

아름다운 청봉의 아침,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혁명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했다.



104 무산지구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거느리시고 1939년 5월 22일, 무산지구 대홍단일대에 진출하시여 순식간에 로은산지구를 완전히 해방하시였다.

8련대와 경위중대를 거느리시고 몸소 신사동쪽으로 진출하신 수령님께서는 신사동에 이르시자 한 귀틀집에 사령부를 정하시고 부대들의 전투행동을 지휘하시면서 이곳 인민들속에서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일제는 반드시 멸망하고 우리 인민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심을 안겨주시였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로동자들뿐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목재소로동자들의 합숙도 찾으시여 모여온 로동자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의 숭고한 사명과 목적을 해설하신 다음 조국을 해방할수 있는 힘은 전체 조선인민 특히는 로동자, 농민의 굳은 단결에 있으며 로동계급은 무산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반일전선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105 대홍단전투를 지휘하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신사동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하신후 곧 부대를 이끄시고 대홍단벌 국사당부근으로 돌아오시였다. 적들은 이때에야 비로소 황급히 서둘러 창평, 붉은바위, 신사동등지에 있던 병력까지 긁어모아가지고 대홍단벌을 향해 미친듯이 달려오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1939년 5월 23일 아침, 신개척에 나갔던 7련대가 돌아오는것을 기다리시며 창평방향에서 오는 적을 소탕할 매복진을 치시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예견하신데로 해가 뜨자 일제의 국경경비대와 경찰대 수백명이 중무기까지 가지고 매복진 가까이에 나타났다.

수령님께서는 7련대를 매복진으로 그냥 통과하게 하시고 7련대를 은밀히 따르면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있던 적들이 매복권안에 완전히 들어섰을 때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그리고 7련대도 매복한 부대와 함께 적을 정면에서 사격하게 하시였다. 정면과 익측으로부터 불의의 일제사격을 받은 놈들은 갈팡질팡하다가 무리로 쓰러졌다. 일부 살아남은 놈들은 제놈들의 증원부대와 맞붙어 총질을 하는 바람에 또다시 녹아났다.



106 **대부대선회작전을 지휘하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새로운 대규모적공세에 대처하여 놈들을 앞질러 분쇄하시기 위해 밀영에 의거하여 일정한 지역적범위에서 활동하던 종래의 유격전술로가 아니라 백두산을 중심으로 지정된 비밀로정을 따라 광활한 지역을 부단히 유동하면서 적을 완전히 피동에 빠뜨려놓고 섬멸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은 그이의 지휘밑에 백두산동북부에서 지정된 비밀로정을 따라 선회하면서 적들이 예상치 않은 곳에 불의에 나타나 놈들에게 타격을 주고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어 적들을 분산혼란시키고 적들이 따라오면 다른 곳에 옮겨가 또 그곳에서 적들을 족치는 령활한 전술로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07 **숙영지의 밤**

박달나무도 얼어터지고 우등불도 품속에 기여드는 밀림의 밤, 간고한 행군과 련속된 전투의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불멸의 주체사상과 조선혁명에 관한 탁월한 전략전술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무장시키시는 경애하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

그이께서 이렇게 위대한 혁명사상과 숭고한 공산주의혁명정신으로 대원들을 교양하신 우등불 타오르는 숙영의 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있어서 보람찬 혁명의 학교이기도 하였다.



108 중대벽보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어느날, 사령부당단체에서는 당총회준비를 위한 당원협의회를 가지면서도 전반적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느라 매우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고계시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어떻게 아셨는지 인차 회의장소로 찾아오시여 당원이 리유없이 자기가 속한 당단체생활이나 회의에서 제외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당단체책임자와의 담화를 통하여 가장 애로로 제기되는것이 벽보편집사업임을 료해하시고 벽보원고집필분공을 몸소 맡으시였다.

그후 수령님께서는 밤늦게까지 등불곁에 벽보판을 세워놓으시고 벽보편집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언제나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을 교양하시였다.



109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20년만에 그립던 조국으로 돌아오신 수령님께서는 들리실 곳도 많으시고 만나보실 사람들도 많으시였으나 조선혁명을 이끌고 나갈 령도계급인 우리의 로동계급을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주시였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사로운 기쁨도 찾으시지 않으시는 수령님께서는 1945년 10월 어느날, 강선제강소를 찾으시여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 밑에서 거칠어진 로동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조선로동계급의 계급적사명과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110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개선연설을 하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원수님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을 맞이한 감격과 환호로 온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는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을 두고 흠모하여 마지않던 경애하는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열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대회연단에 나오시자 대회장에서는 하늘땅을 뒤흔드는듯한 열광적인 환호성이 터져올랐고 《김일성장군 만세!》소리는 삼천리강산에 메아리쳤다.

수령님께서는 이 대회에서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시였다.



111 조국에 개선하시여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만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수령님께서는 새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시는 등 중대한 나라일을 이루신후에야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에게 개선의 첫인사를 하신후에야 비로소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였다.



112 **평양시공청위원회를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새 청사를 받고 사업하는 공청일군들을 념려하시여 함박눈이 쏟아지는 깊은 밤에 일부러 이곳에 들리신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행한 부관이 밤늦도록 일하다가 책상에 머리를 숙인채 잠든 공청일군을 깨우려고 하자 손을 저어 말리시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의 등에 조용히 덮어주시고 자리를 떠나시였다.



113　해방된 철도로동자들 앞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지 석달만인 1946년 정월 어느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한 철도공장 로동자들을 친히 찾으시였다.

그처럼 마음속으로 그리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을 몸가까이 뵙게 된 철도로동자들의 감격과 기쁨은 끝없었다.

이날 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 앞에서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해방을 맞이한 우리 로동계급은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이제는 이 공장이 우리의 공장이며 동무들의 공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화차 한대, 객차 한대씩이라도 보수하며 생산해나간다면 우리의 생활형편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

그러시면서 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을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원수님의 말씀은 철도로동자들에게 끝없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원천으로 되였다.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로동자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냈으며 전후에는 《붉은기》호 전기기관차와 내연기관차를 만들어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이였다.



114 토지개혁을 앞두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일제와 지주놈의 토지를 빼앗아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토지문제를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초미의 문제로 보시였으며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치시였다.

해방의 봄빛을 삼천리강산에 뿌리시며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토지개혁을 제일 먼저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몸소 평남도 숙천군을 비롯한 농촌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가장 정확한 독창적인 토지개혁방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무르익히신 원대한 구상과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몸소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마련해주신 주체적인 토지개혁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1946년 3월 5일 력사적인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실시되였으며 우리 농민들은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실현하였다.



115 토지개혁을 실시하신후 농민들과 함께 모를 심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일찌기 광활한 지역에서 농촌의 혁명진지를 튼튼히 꾸려나가시던 초기혁명투쟁시기와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에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시고 종다리 우짖는 봄날 그들과 함께 씨를 뿌리시던 항일무장투쟁의 그날에 벌써 3천리강산에 찾아올 새봄과 땅의 주인된 농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설계하신 수령님, 그이께서는 해방후 농민들의 세기적숙원을 풀어주시고도 이렇듯 언제나 농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였다.



116　평양시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1946년 5월 21일,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에서 뜨신 첫삽, 그것은 해방된 인민들의 가슴속에 새 조국건설을 위한 뜨거운 열망과 투지, 창조의 불길을 지펴올린 귀중한 한점의 불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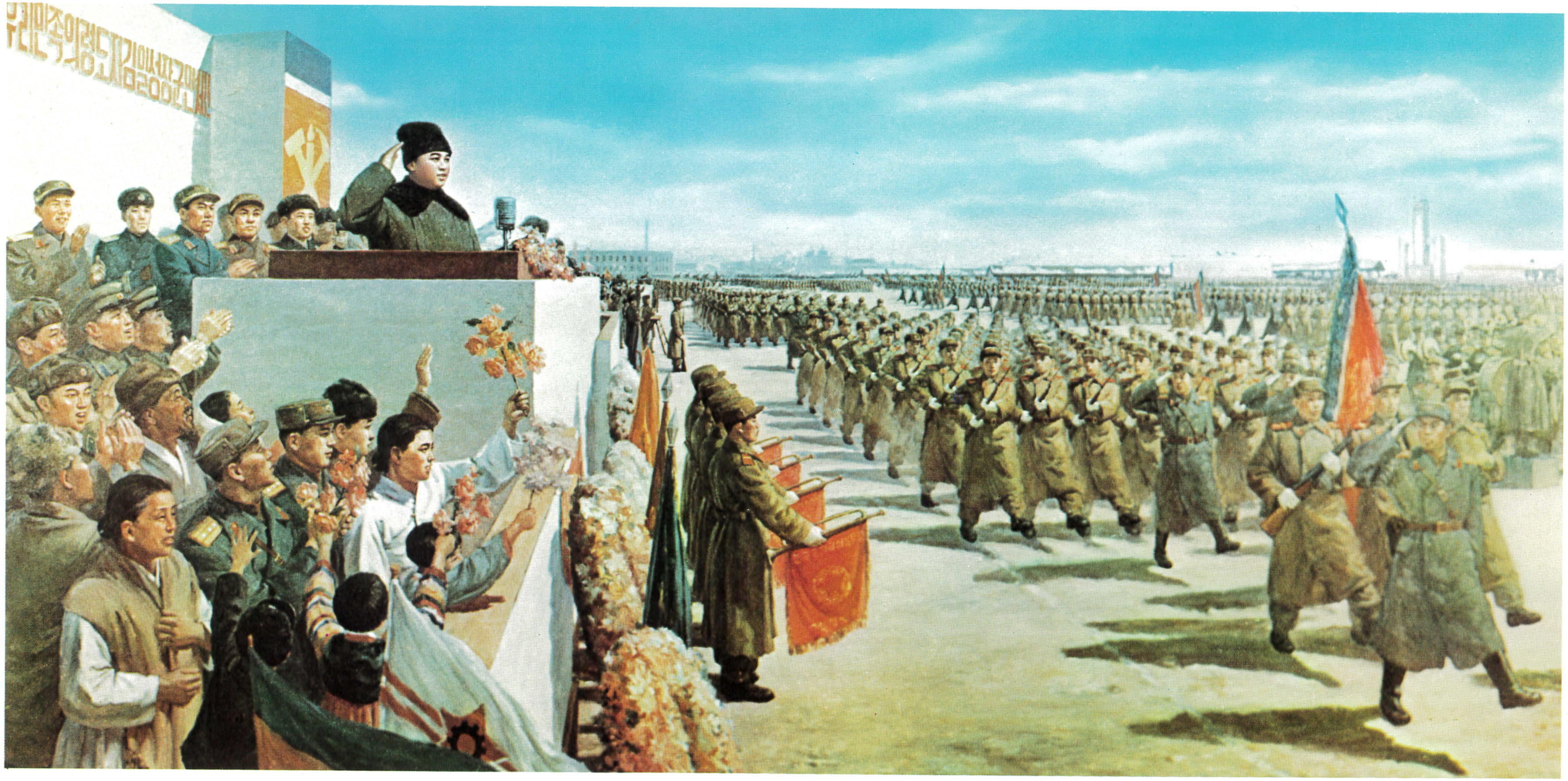
117 첫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들 앞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인민의 대표를 자기 손으로 주권기관에 선거한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를 앞둔 1946년 10월중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그이를 인민의 첫 대의원으로 추대한 선거자들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짓밟히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신 인민의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날 선거자들 앞에서 당시의 국제, 국내 정세와 첫 민주선거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밝히시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해방의 기쁨과 민주개혁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첫 민주선거에 참가하게 되였을뿐아니라 민족의 영명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게 된 끝없는 긍지와 영예로 하여 군중들은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며 천지가 떠나갈듯한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을 높이 올리고 또 올리였다.

하늘땅에 메아리치는 만세의 웨침소리는 해와 달이 다하도록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려는 이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118　조선인민군창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침략자를 때려눕힌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다.

원수님께서는 해방후 첫날부터 다른 모든 사업과 함께 인민무력건설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셨다. 그이께서는 지난날 우리 조국이 일제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한 쓰라린 교훈과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는 자기의 민족군대를 창건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한편 원수님께서는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비롯한 보안간부훈련소들을 창설하시여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워나가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시여 1948년 2월 8일,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키우신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써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현대적정규무력—조선인민군의 창건은 김일성원수님의 자위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며 새 조국건설에서 조선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였다.



1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선포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수령님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지를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이였다.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유와 독립의 빛나는 기치,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에게 짓밟히던 암흑의 동방에 새 사회주의의 보루가 거연히 일떠서게 되였다.



120　민주건설시기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황해제철소는 우리 나라의 손꼽히는 대종합야금기지로 자라났다.

일제가 도망치며 파괴한 용광로를 우리 손으로 복구하여 새 조국건설에 쓰일 쇠물을 폭포처럼 뽑아내던 민주건설시기 원수님께서는 황해제철소의 용해공들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어지러워진 용해공들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신 원수님께서는 쌀은 넉넉한가, 반찬은 무엇을 먹는가, 주택조건은 어떠한가 등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어렵고 힘든 작업을 기계화하여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헐하게 일하면서도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올릴데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강철로동자들에 대한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에 끝없이 감격한 용해공들은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121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영명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였고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그이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군사예술의 대승리였다.

항일의 15성상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주체의 기치, 조국광복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강적 일제침략군을 무찔러이기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강적 미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심으로써 한세대에 가장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영생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심으로써 반제반미투쟁의 장엄한 새 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122 탈곡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나날에도 농촌을 찾으시고는 농민들과 함께 풀밭에 그냥 앉으시여 전시생산이며 사회주의농촌의 앞날을 의논하셨고 보통농민들처럼 몸소 일손을 잡으시였다. 그리하여 사나운 폭풍과 불길 속에서도 이 땅에 협동화의 씨앗은 움트며 자라났고 농민들은 미국놈비행기의 무차별폭격속에서도 풍년을 안아왔다.



123 《조선의 예술은 살아있소》

미제를 무찌르는 전쟁의 불길이 가렬하던 준엄한 시기.

악기와 노래를 무기로 삼고 전선을 넘나들며 결전의 노래, 혁명의 노래를 부르던 인민군협주단원들은 고산진에서 언제나 흠모하던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래동안 헤여졌던 아들딸들을 만나시듯 예술인들을 뜨겁게 안아주시였다.

무대도 막도 없는 교실에서 그들의 공연을 친히 관람해주신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예술인들을 치하해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훌륭하오. 장하오! 조선의 예술은 살아있소.》

정녕 우리 인민에게 해방과 함께 악기를 쥐여주시고 투쟁의 노래, 혁명의 노래를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인민군협주단도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해주신것이며 수령님의 극진하신 보살핌과 뜨거운 배려속에서 참으로 훌륭한 붉은예술부대로 자라난것이다.



124 **고사포병들의 전투성과를 치하하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50년 11월 11일,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은 고산진에서 대공방어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인민군대의 한 고사포중대를 몸소 찾으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고사포병들에게 적기를 많이 잡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미제공중비적들을 불사르는 고사포중대의 대공전투를 몸소 현지에서 지휘해주시였다.

붉은고사포병들은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가렬한 격전의 불비속에서 자기들을 뜨겁게 보살펴주시며 몸소 지휘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으로 가증스러운 적기와의 싸움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했다.



125 진격의 길에서

기계화부대의 요란한 굉음소리, 우렁찬 노래소리, 씩씩한 발구름소리가 장엄하게 울리는 진격의 길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며 인민군전사들을 바래우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독창적인 군사예술에 의하여 미제침략자를 무찔러 승리에 승리를 거두며 질풍같이 남으로 진격해나가는 인민군장병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뵈옵는 감격으로 하여 가슴 한없이 들먹거린다.

실로 원쑤 미제가 지른 침략전쟁의 불길로 하여 아직 청소하던 조국앞에 다가온 위험은 너무도 엄혹했다.

그러나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의 전략전술로 전쟁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걸음마다 미제의 작전을 짓부시여 적들을 죽음의 함정에로 몰아넣으시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군사예술, 독창적인 전법으로 하여 조선인민군의 진격의 길은 열리였으며 승리의 함성이 높이 오른것이다.



126 《국이 잘 끓여졌소?》

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도 언제나 인민군전사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고 포연자욱한 전선의 고지에 찾아오시여 화선갱도식당에도 들리시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펄펄 끓는 국가마곁에 이르시여 손수 국맛까지 보시면서 화선콩나물 맛이 별맛이라고 취사병들의 살림솜씨를 치하해주시였다.

전사들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면서 포탄우박치는 전선에서도 언제나 더운 밥과 따끈한 국을 먹도록 해주시고 잠자리까지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 사랑속에서 인민군전사들은 무적의 장수힘을 얻는것이다.



127 격전을 앞두고 친히 포연자욱한 최전선고지에 나오시여 인민군 부대의 작전을 지휘하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

영웅조선의 불굴의 기상인양 포화속에서도 푸른 하늘에 거연히 머리를 추켜든 조국의 수많은 승리의 메부리들은 그이의 위대한 군사예술을 상징하는 불멸의 기념비로 높이 솟아 빛을 뿌린다.



128 조선인민군장병들을 고무격려하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

전선의 불길은 가렬하였다. 미제는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새로운 《공세》를 꿈꾸며 발광하였다.

1951년 이른 봄,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서 불구름헤치시고 전선에 나오시였다.

포탄에 나무들도 성한것이 별로 없는 전선고지의 산턱에서 친어버이심정으로 전투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신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전투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빛나는 위훈에로 고무격려하시였다.

숭엄히 울리는 수령님의 말씀은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에 파고들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부풀인 인민군장병들은 미제원쑤놈들의 그 어떤 기도도 일격에 소멸하며 조국의 촌토를 목숨으로 사수할 충성의 결의로 피를 끓이였다.



129 인민군장병들 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

수령님 가시는곳마다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은 더욱더 들끓으며 용솟음쳤다.

수령님 가시는곳마다 때아닌 봄이였고 물결치는 웃음의 꽃바다였다.

수령님 계시기에 전쟁의 불비속에서도 영웅적인민군장병들과 우리 인민들은 절망과 비관을 몰랐고 충성으로 타끓는 투지와 용맹만을 알았다.

그것만으로도 조선은 침략의 무리들을 압도하고 남음이 있었다.



130 조국해방전쟁시기 백송리에 있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교직원,학생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하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그때 순천군 자산면 백전리(오늘의 순천군 백송리)의 깊은 자모산성기슭에 자리잡고있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오시였다.

원수님께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은 온 골짜기에 메아리치듯 삽시에 알려져 여기저기에서 교직원,학생들이 원수님께로 달려왔다.

《김일성원수 만세!》의 환호가 산골짜기에 울려퍼졌다.

원수님께서는 교직원, 학생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시였다.

이날밤 원수님께서는 자정이 넘도록 대학 간부들과 학자, 교원들을 만나시여 나라의 형편을 일일이 알려주시면서 전시교육사업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특히 민족간부육성에서 종합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는 그후 종합대학발전의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131　조국해방전쟁시기 백송리에 있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으시여 학생들과 담화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1952년 4월 12일, 그때 순천군 백송리에 있던 김일성종합대학을 몸소 찾으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한 숙소 (반토굴집)에 들리셨다.

전선에서 싸우다가 대학으로 돌아오라는 원수님의 부름을 받고 며칠전에 이곳으로 온 학생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잘 싸우고 돌아왔다고 치하를 해주신 원수님께서는 고향은 어딘가, 어느 전선에서 싸웠는가, 학습과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은 없는가를 차근차근 물어보시고 걸린 문제를 죄다 풀어주시였다.

학생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고 문밖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원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서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공부를 잘해야 하오. 공부도 미국놈을 족치는것이요. …이제부터는 학습전선에서 잘 싸우시오. 학습도 전투요!》

학생들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높은 신임에 보답할 불같은 결심을 마음속으로부터 굳게 다지며 힘차게 대답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알았습니다!》



132 조국해방전쟁시기 백송리에 오시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들에게 전후 사회주의 건설방향에 대하여 교시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예지로 빛나는 수령님의 천리안광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첫 시기에 벌써 전쟁의 불구름을 뚫고 비쳐오는 승리의 서광을 내다 보셨으니 포화속에서 전후의 복구건설을 설계하신 그이의 심원한 통찰력과 원대한 구상에 고무된 조선인민의 힘은 실로 무적이며 일당백이였다.



133 **농민들속에서**

아직은 조국땅에 전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던 1952년 5월 어느 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순안군 원화마을을 찾으시였다.

농민들과 함께 거름도 뿌리시고 씨앗도 묻으시면서 온종일 들에서 보내신 원수님께서는 농사일이며 생활형편을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이날 원수님께서는 소겨리반, 품앗이반과 같은것을 많이 무어 여러 집이 힘을 합쳐 일을 하면 모자라는 로력과 축력, 농기구문제를 풀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앞으로 농촌을 협동화하는데도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원수님께서 한 농촌마을에 몸소 심어주신 협동화의 씨앗은 그후 온 나라 농촌에서 협동화의 위대한 승리로 빛나는 열매를 맺었다.



134 락원기계공장 주철직장 당세포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이 한창 타오르던 1952년 6월 21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천리포화속을 헤치시고 조국땅 서북변에 자리잡은 락원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을 몸소 찾으시여 이곳 주철직장의 당세포회의를 친히 지도하여주시였다.

로동계급의 담력과 인민의 슬기와 힘을 믿으시고 불사신인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언제나 만난을 뚫으시며 혁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신 어버이수령님! 전선과 후방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바쁘시고 귀중하신 몸이셨지만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135 전쟁의 불길속에서 농촌마을의 어느 한 가정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는 실로 한량이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전시에도 불편한것이 없도록 전재민들을 보살펴주셨고 원쑤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고아들을 넓으신 품에 안아 키워주셨으며 애국렬사유가족들과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에게 전국가적, 전인민적 원호사업을 조직하도록 돌보시였다.

바위도 타고 강물도 끓어번지던 격전의 날에 그처럼 인민생활을 극진히 념려해주신 수령은 세상에 일찌기 없었고 또한 전시에도 그처럼 행복할수 있었던 인민은 일찌기 세계전쟁력사에 없었다.



136 전후복구건설의 진두에 서시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승리로 끝난후 3일째인 1953년 7월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대야금기지인 황해제철소를 찾으시여 불속에서 용감히 싸워이긴 로동자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였으며 무성한 잡초가운데 쌓이고 딩굴며 헝클어진 철골벽체들과 파쇠무데기들로 발을 옮겨 디딜수 없는 황량한 구내를 몸소 돌아보시고는 동력부뒤산에 오르시여 이곳 로동자들에게 복구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한장의 벽돌과 한그람의 세멘트도 없던 당시의 엄혹한 난관앞에서도 황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금도 동요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보람찬 투쟁의 새 길우에 거연히 나섰으며 미제침략자들이 마사놓은것보다 2배나 더 큰 1호평로를 1년도 못되는 기간에 빛나게 일떠세웠다.



137 들끓는 창조의 아침,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복구건설현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구름속에서 벌써 수도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작성하신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에서 평양건설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을 진두에서 몸소 지휘하시였다. 새로운 사회주의적 건축양식과 눈부신 예술적조화미를 자랑하며 불사조마냥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일떠선 영웅조선의 심장 평양의 금빛년대기는 실로 안개낀 이른 새벽이나 비내리는 밤에도 건설장에 나오시고 삼복지경의 일요일이나 강물이 얼어터지는 겨울밤에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건설자들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심혈과 위대한 사랑의 기록인것이다.



138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오》

정전이 된지 사흘째 되던 1953년 7월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미제에 의하여 형체를 몰라보게 파괴된 황해제철소를 찾으시였다.

마중나온 로동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나는 전쟁속에서도 동무들이 그리웠소, 어디 다친데들은 없소?》**라고 못내 기뻐하신 원수님께서는 잡풀만이 무성한 평로와 용광로 자리들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것이였다.

잠시후 원수님께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로동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우리는 락심하지 말아야 하오, 우리는 미국놈들을 때려눕히고 승리하지 않았소.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할것이요. 모든 것이 파괴되였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복구할 밑천이 있거든.》

그러시고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복구건설에서도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오.》

정전직후 황해제철소의 나지막한 언덕우에서 하신 원수님의 이 말씀은 이곳 강철전사들의 투쟁의 지침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그들이 이룩한 모든 승리의 열쇠로 되였다.



139 비료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1956년 5월,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전쟁의 피해를 말끔히 가시고 생산에 들어선 흥남비료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정전직후 이곳에 오시여 파괴된 농촌경리를 복구발전시키려면 비료공장을 빨리 돌려야겠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복구건설방향을 밝혀주신 원수님께서는 공장구내를 감회깊이 바라보시면서 로동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이날 눈같이 흰 류안비료가 쏟아져내리는 출하장에 이르시여 두 손으로 새하얀 비료를 손수 움켜쥐시고 살펴보시던 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에게 《이것은 곧 쌀이요. 쌀은 사회주의요.》라고 말씀하시였다.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하신 원수님의 말씀속에는 하루속히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실현하여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알곡생산을 늘여 전체 인민이 모두다 이밥에 고기국을 먹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위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는것이였다.

하기에 로동자들은 더 많은 비료와 농약을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여 수령님의 높은 뜻을 하루속히 빛내여갈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140 강선제강소의 로동계급들과 나라일을 의논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1956년 12월 28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인 1957년도인민경제계획과 그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방도를 밝히시고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당과 혁명이 국내외의 온갖 원쑤들로부터 발악적인 도전을 받고있던 이 준엄한 시기에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당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를 흉금을 털어놓으시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누구를 믿겠는가, 당신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끝없이 격동된 강선의 로동계급이 일떠서고 그 뒤를 따라 온 나라가 일떠섰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이렇게 일어났다.



141 **저수지터전을 잡아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1957년 정월, 삼석마을을 찾으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곳 농민들이 물이 모자라 논을 많이 풀지 못하고있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논 풀 방도를 알기쉽게 가르쳐주신 원수님께서는 밤은 좀 깊었지만 직접 나가서 저수지자리를 만들만한곳을 찾아보자고 하시면서 먼저 밖으로 나가시였다. 사위가 캄캄한 밖에서는 눈비가 세차게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벽시계는 열시를 가리켰다.

마을농민들은 너무도 뜻밖의 일에 몸둘바를 몰라하다가 원수님께 후날 나가보시자고 간곡히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원수님께서는 《나는 동무들이 이밥만 먹을수 있다면 이런 눈비를 얼마든지 맞겠소…》라고 하시며 몸소 홰불을 높이 추켜드시고 캄캄한 벌로 나가시였다.

진정 친자식에게 어서 이밥을 먹이시려는 친어버이의 은정이 그대로 어려있는 원수님의 말씀에 농민들은 모두 뜨거운 눈물을 머금었다.



142 김책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1957년 5월 8일 아침,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소 용광로직장 용해공들은 무한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오신 김일성원수님을 맞이하였다.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고 작업하느라고 어지러워진 로동자들의 손을 허물없이 하나하나 잡아주신 원수님께서는 로의 여러 부분을 손수 만져도 보시고 들어도 보시면서 그때 하나밖에 없던 이용광로를 잘 돌려 25만톤의 선철을 생산하도록 로동자들의 생산투쟁을 지도해주시였다.

용해공들을 언제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한 용해공의 간청을 허물없이 받아들이시여 30분이나 기다리셨다가 출선작업까지 보아주시고 직장을 떠나시였다.

어렵고 힘든 일이 나설 때마다 나라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나라형편을 알려주시면서 무궁무진한 힘을 용솟음치게 해주시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에 고무된 용해공들은 800도를 헤아리는 로안에 뛰여들어 로수리를 하면서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실천하였다.



143 **배머리에 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아직 갈매기도 잠을 깨지 않은 이른 새벽에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수산사업소의 포구를 찾으시였다.

어느 한 배에 오르신 원수님께서는 너무도 뜻밖의 일에 어쩔줄 몰라하는 어로공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일은 힘들지 않은가, 살림살이는 곤난하지 않은가, 배에서 생활하는데 애로되는 점은 없는가 등을 세세히 물으시였다.

비옷에서 물이 들어 어로공들의 옷이 어지러워진다는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고기비늘이 묻어 어지러워진 한 어로공의 비옷을 허물없이 입어까지 보시면서 어로공들에게 편리하도록 질이 높은 비옷을 만들어줄데 대하여 관계부문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시였다.

이른새벽 외진포구에 찾아오셔서 고기비린내 풍기는 비옷까지 입어보시며 친어버이의 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원수님의 사랑에 끝없이 감격한 어로공들은 더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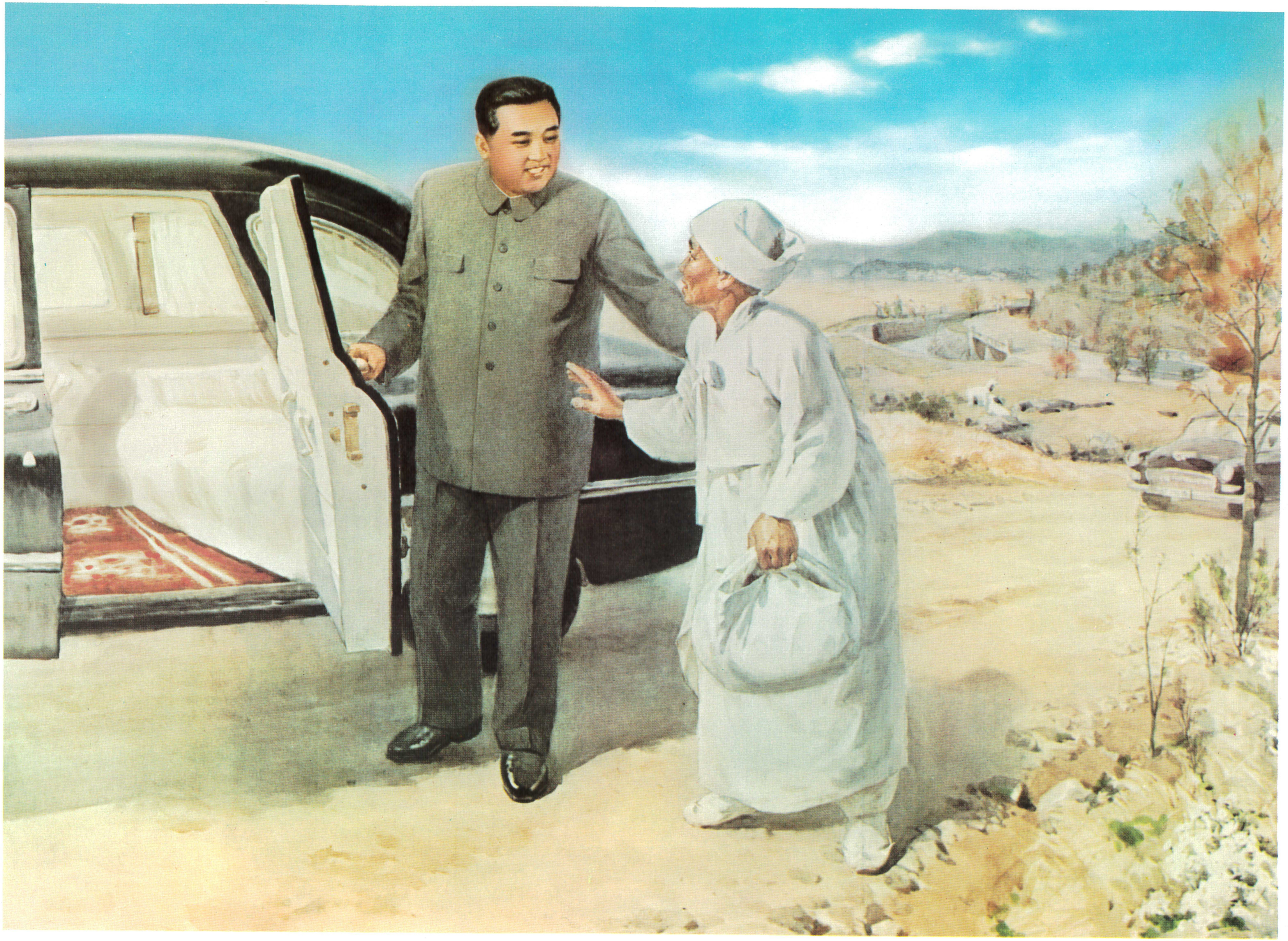
144 포경선을 현지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한톤의 물고기라도 더 많이 잡아 인민들의 밥상을 푸짐히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 그이께서 오늘은 동해바다의 한 포경선을 몸소 찾아오시였다.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수산자원가운데서 고래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필요한 수산물이라는것을 알기쉽게 깨우쳐주신 원수님께서는 친히 고래포까지 움직여보시면서 사격술을 높여 더 많은 고래를 잡을 방도를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은 아주 용감한 일을 하고있소. 청년들이 해볼만한 보람있고 흥겨운 일이요.**》하고 청년어로공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과 크나큰 믿음에 가슴 뭉클해진 청년어로공들은 그이의 말씀대로 더 많은 고래를 잡고야 말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145 할머니가 남긴 말씀

1957년 여름 어느날, 어두워질무렵이였다. 황해남도 농촌사업을 현지지도하시기 위해 바쁜 길을 가시던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길가에서 한 할머니를 보시고 차를 멈추시였다.

할머니가 재령군 부덕리 사당골에 사는 사위네 집으로 나들이를 간다는것을 아신 원수님께서는 그곳까지 모셔다드리겠으니 어서 차에 오르라고 하시면서 할머니를 차안으로 이끄시였다. 할머니는 그이를 어디선가 많이 뵌것같았으나 누구신지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원수님께서 물으시는대로 할머니가 살아가는 형편을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차는 어느덧 사위네 집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에 와서 멎었다. 할머니는 이처럼 고마우신분이 누구신지 알고싶어 물었으나 그이께서는 그저 빙그레 웃으시기만 하셨다. 그리고 손수 할머니를 부축하시여 차에서 내려서게 해주신 다음 《할머니, 오래오래 사십시오. 조심하여 다녀가십시오.》라고 허리굽혀 인사까지 하시고 차에 오르시였다.

뒤따라 온 차에서 내린 젊은이한테서 그분이 다름아닌 김일성원수님이심을 알게 된 할머니는 그만 보짐을 떨구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수상님, 길이 만수무강하십시오!》 할머니는 몇번이나 이렇게 되뇌이며 감격에 겨워 흐느꼈다.



146 《당은 유가족들을 기둥으로 믿고있소》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혁명의 길에서 희생된 애국렬사유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1957년 12월, 황해남도 벽선군의 한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한 유가족의 집에 들리시였다. 마치 새집살림을 차려놓은 딸네 집에 찾아오신 친아버지처럼 살림살이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신 원수님께서는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말을 들으시고 원쑤에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효성있게 섬기라고 말씀하시였고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아이를 잘 키워서 아버지의 원쑤를 갚도록 하라고 타이르듯 말씀하시였다.

집을 떠나시면서 유가족의 손을 다시금 정답게 쥐여주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내 재차 부탁하오. 공부 잘하고 더 주인답게 군중의 선봉에 서서 일해주오. 아이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민족간부로 만들어야 하오. 당은 유가족들을 기둥으로 믿고있소.》라고 말씀하시였다.

《당은 유가족들을 기둥으로 믿고있소.》—이 말씀속에는 진정 그 얼마나 뜨겁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차넘치고있는것인가!

이 사랑, 이 믿음속에서 오늘 유가족들은 혁명의 억센 기둥으로 자라났다.



147 이른새벽 조선소에 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정전직후 어느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한 조선소를 찾으시였다. 전쟁전에 만들다 두었던 30톤급목선을 끌어내놓긴 했지만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망설이고 있는 조선공들을 뜨겁게 포옹해주신 원수님께서는 미제를 때려눕힌 용맹과 슬기로 배를 무어내자고 그들을 고무하시였다.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조선공들은 450톤급중형뜨랄선을 무어냈으며 대형선박건조에로 줄달음쳐갔다.

바로 그때 또다시 조선소를 찾아주신 원수님께서는 대담하게 큰 배를 만들어내라고 조선공들을 고무해주시였다.

나라의 선박공업을 발전시키시려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가슴에 안은 조선공들은 두달남짓한 기간에 3,750톤급대형랭장운반선을 무어냈으며 뒤이어 5,000톤급대형랭장운반선도 80일동안에 무어내였다.

바로 그 조선소에서 김일성원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재일동포들을 태워올 사랑의 배, 5천톤급 대형려객선 《만경봉》호가 무어졌던것이다.



148 해주—하성간 철도부설공사장 건설자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1958년 6월 19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해주—하성간 2백여리의 넓은 철길부설공사장 건설자들은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격려에 고무되여 3～4년이라는 오랜 시일이 걸려야 하는 이 방대한 공사를 단 75일간에 빛나게 끝냄으로써 세계철도부설력사에서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치렬한 혁명의 열풍속에서 태여난 천리마는 참으로 거센 힘과 높은 속력으로 세월을 주름잡아 내달렸다.



149 농촌상점에 오신 수상님

모든 농촌마다 상점을 꾸려주시여 농민들이 언제나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쓸수 있도록 하여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자주 농촌상점을 찾으시여 상점일을 지도하여주신다.

1958년 6월 어느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평안남도 안주군의 한 농촌상점을 찾으시였다. 상점에 갖추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부족점을 깨우쳐주신 원수님께서는 **《상업일군이란 물건을 파는데만 머리를 쓰지 말고 사가는 사람의 립장에도 서야 하오. 동무들은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맡은 어머니가 되여야 하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황남도의 어느 농촌상점에 들리시여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토끼털외투를 보시며 기뻐하여주시고 창성의 한 상점에 가시여서는 농민들이 좋아하는 질좋은 천과 신발을 더 많이 농촌에 보내주도록 배려하신 어버이수령님!

그이의 친어버이사랑속에서 우리 농민들은 그 어디에 살건 도시사람 부럽지 않게 모든 물건을 마음대로 사쓰며 살림살이를 꽃피워가고있다.



150 조국의 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인 것만큼 바다를 잘 지켜야 하며 그러자면 해군이 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군무력의 건설과 강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1958년 12월, 한 해군함정을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방금 해상경비근무에서 돌아온 해병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모두들 건강하며 춥지는 않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해병들의 잠자리며 먹는 음식, 악기와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일일이 돌보아주신 그이께서는 깨끗이 소제하여놓은 포도 만져보시며 사격술이 높아야 싸움을 잘할수 있다고 해병들을 깨우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함의 전투항해훈련을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훈련을 진행하는 해병들의 영예와 기쁨은 그지없었다.

원수님의 이렇듯 따사로운 품속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은 조국의 바다를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강력한 현대적무력으로 자라났다.



151 한점의 불꽃을 보시고

1959년 3월, 함경북도당단체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낡은 기대 3대를 가지고 자체로 새로운 공작기계를 만들어낸 주을아마공장 로동자들의 대담한 실천을 보시고 온 나라에 숨어있는 기계생산의 무진장한 예비와 가능성을 내다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싹을 한점의 불꽃으로 삼으시여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불길을 일으킬것을 발기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불길속에서 한두대의 공작기계가 새끼를 쳐서 직장으로 되고 직장은 다시 공장으로 되였으며 공장은 또 새로운 공장을 낳았다. 전국을 조밀한 그물로 뒤덮은 기계공장들은 바로 이렇게 태여났던것이다.



152 대동강호안공사에 동원된 대학생들을 격려하시는 경애하는 수령김일성원수님

인민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전변되여 사람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대동강유보도건설공사가 한창이던 1959년 어느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호안공사에 동원된 대학생건설자들을 찾아오시였다.

원수님께서는 한 대학생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손으로 잡아 쓰다듬으시면서 일이 힘들지 않는가, 잠자리는 편안하며 식사는 입맛에 맞는가고 다정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 청춘의 정열과 지혜를 쏟아붓고있는 대학생들의 로력성과를 높이 치하하시고 그들을 격려해주시였다.



153 청산리에 오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1960년 2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평안남도 강서군의 한 농촌마을인 청산리를 찾으시고 보름동안이나 이곳에 묵으시면서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하시였다.

한점을 뚫어 천만가지를 헤아려보시고 한고리를 풀어 전체를 움직여나가시는 원수님께서 청산리에서 군과 리의 모든 사업을 깊이 료해하시고 군중들과 구체적으로 의논하시면서 발전하는 현실과 변천된 새 환경에 맞게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길을 탐구하시였다.

이 력사적인 지도과정에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당 및 국가사업, 경제사업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지도방법인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모든 변혁과 승리의 원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힘있는 리론실천적무기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모든 혁명과업을 해결하시는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적군중관점,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이다.



154 창성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벌방사람들뿐아니라 산간지대사람들에게도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사랑의 해빛은 여기 두메산골 창성땅에도 따사롭게 비치여 행복한 살림이 마을마다 꽃피고있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시며 높은 령,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농민들을 찾으시여 창성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 그이께서는 이곳 농민들을 생각하시여 어린 양들도 보내주셨고 협동농장의 한 사양공처녀에게는 양을 잘 기르라고 자신께서 보시던 책도 보내주시였다.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성의 산들은 황금산으로 변하고 산골짝 언덕마다 양떼가 구름처럼 흐르며 지방공장의 기계소리가 행복의 노래인양 하늘높이 울려퍼지고있다.



155 붉은기군인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1960년 8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의 한 구분대를 몸소 찾으시여 붉은기중대운동의 불꽃을 지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친히 발기하신 붉은기중대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꽉 들어찬 공산주의 붉은집단으로, 그 어떤 원쑤도 일격에 소멸할 수 있는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발전되였다.



156 조국의 품

지난날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갖은 모욕과 학대, 무권리와 굶주림에 시달려오던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전체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재일동포들에게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을 귀국시킨 다음에도 모든 동포 한사람한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기능과 희망에 따라 일터와 살림집을 마련해주시였고 모두다 참된 삶의 보람을 안고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며 일하도록 배려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사업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가정과 일터를 찾으시여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극진히 돌봐주시였다.

그들, 일본에서 귀국한 모든 동포들은 오늘 어버이수령님이 계시기에 한없이 따사롭고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긴 영원한 감격과 행복을 소리높이 노래한다.



157 대안의 로동계급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1961년 12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섯번째로 대안전기공장을 찾으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생산현장으로부터 로동자들의 합숙과 식당 그리고 가정들을 몸소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전반사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원수님께서는 공장 당 및 행정일군협의회를 친히 지도하시면서 낡은 공장관리운영체계에서의 부족점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적공업관리체계인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여주시였다.

원수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공산주의적지도관리체계인 동시에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새롭고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이다.



158　　검덕골에 오신 수상님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나아갈 길을 등대처럼 밝혀주시는 인민의 태양 김일성원수님! 그이께서는 발밑에서 안개가 피여오르는 여기 검덕골의 산중턱 광부들의 일터를 찾아오시였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지도하시던 때에 조국의 풍만한 자원을 개발하여 부강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일떠세우자고 대원들을 교양하시던 원수님께서 오늘은 험한 산길을 무릅쓰시고 여기 검덕골에 찾아오시여 대자연개조의 위대한 구상을 펼치시며 진두에서 광부들의 투쟁을 지휘하신다.

지난날 어렵게 살아온 우리들이기에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려나가야 한다고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시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는 청년광부들의 눈앞에는 벌써 거창한 숨결을 내뿜으며 일떠서는 앞날의 광산이 안겨온다.

김일성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이라면 산을 뚫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굴함없이 싸워나아가려는 광부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랑이 넘치고있다.



159 조사공들속에 계시는 원수님

1962년 1월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사공들의 사업을 보살펴주시려고 평양제사공장을 몸소 찾으시였다.

직장안을 돌아보시면서 녀성들이 일하는 공장인데 더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꾸려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신 원수님께서는 조사공들의 작업복을 하나하나 만져보신 다음 사철 더운물을 다루는 조사공들의 손이 어떤가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손들이 모두 깨끗하고 살결이 고운것을 보시고 저으기 안심되시는듯 하시던 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디 발은 일없소?》 하시며 그들의 발을 살펴보시는것이였다.

순간 조사공들은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고야 말았다.

해방전에는 손가락사이가 온통 물커져도 누구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는데 원수님께서는 조사공들의 손을 걱정하시여 좋은 기계들을 보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이처럼 공장에까지 찾아오시여 심려하여주시니 어찌 그들이 흐느끼지 않을수 있었으랴!

이날 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로동조건이 최대한으로 갖추어진 공장을 새로 지어주도록 하시였다.



160 만풍년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농촌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사랑속에서 우리 나라 농촌은 해마다 만풍년이 들고 농민들은 행복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노래부른다.

아직 흰눈이 산과 들에 깔려있는 겨울철부터 수만리 농촌길을 걸으시면서 농민들에게 풍년열쇠를 마련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황금이삭 무겁게 설레이는 들판에서 오곡백과 무르익은 풍요한 가을을 기뻐하시며 농민들의 수고를 분에 넘치게 치하하여주신다.

어김없이 가을이면 찾아오는 조선의 만풍년, 그것은 **김일성**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싹트고 열매맺는 영원한 풍년이다!



161 **닭공장에 오신 수상님**

1963년 6월 전국가금부문일군들을 창성으로 부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내 나이 50이 되도록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한게 한스럽소.》라고 하시면서 가금업을 발전시켜 고기문제를 풀어갈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가금업발전방향과 방도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시는 한편 피곤도 휴식도 잊으시고 도시와 로동자구들을 찾으시여 닭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방향을 제시하여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현대적닭공장설비들을 보내주시고 선진적인 닭관리방법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주셨으며 친히 수많은 닭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온 나라에 닭고기와 닭알이 넘쳐나게 하시려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은 빛나는 열매를 맺어 우리 나라에는 어디가나 닭공장, 오리공장들이 일떠섰으며 해마다 7억개이상의 닭알과 많은 닭고기, 오리고기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게 되였다.



162 과수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1963년 10월 중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평양시 주변의 어느 한 과수농장을 찾으시였다.

농장을 한눈에 굽어볼수 있는 구릉중턱에 오르시여 허리에 량손을 짚으시고 열매 주렁진 과수원을 만족스럽게 둘러보시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전쟁 때 내가 이곳에 들렸을 때는 살매나무만 있었댔지, 그때 우리가 예견성있게 과수원을 꾸렸기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인민들에게 과실을 공급할수 있게 되지 않았소. …

바로 그 과수원은 1951년 가을, 전선을 시찰하시고 돌아오시던 원수님께서 오늘을 내다보시고 꾸려주신 과수원이였던것이다.

인민들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과실을 먹을수 있도록 하시려고 원수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과수원이 어찌 이곳뿐이며 그이께서 찾으신 과수원이 어찌 한두곳뿐이겠는가.

봄이면 향기로운 꽃피고 가을이면 붉은 열매 주렁지는 이 나라의 모든 과일동산마다에 원수님의 손길이 어려있는것이다.



163 식료상점을 찾으시여

어제는 닭공장에 들리시여 더 많은 닭알과 닭고기를 생산할 방도를 대주시더니 오늘은 원수님께서 여기 식료상점을 찾아오시여 닭알이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되는가를 알아보시고계신다.

세상에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여 먹고 입고 사는 걱정을 모르게 해주시고도 마음 놓이시지 않아 현지지도의 바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들의 집을 찾으시여 장맛은 어떤가, 반찬은 어떤것을 먹는가를 알아보시는 인민의 어버이 김일성원수님! 그이께서는 닭알이 넉넉히 공급되며 인민들이 많이 사간다는 판매원의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은 그 얼마나 행복한 인민인가!



164 **한 농민의 가정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언제나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일을 의논하시며 그들이 일을 더욱 헐하게 하면서도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고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배려를 받는 우리 농민들은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건설자된 영예와 긍지 드높이 사회주의 농촌진지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다.



165 《김일성원수님고맙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후대들의 교육교양사업을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기본고리의 하나로 보시고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인민적교육제도를 세우시고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에게 넓고넓은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원수님께서는 1967년부터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교육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그이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돌려주시는 또 하나의 크나큰 사랑이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은 우리의 희망이며 조국의 꽃봉오리들인 후대들에게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으며 태양보다 따사로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166 설맞이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때가 제일 기쁘시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을 뜨겁게 사랑해주시는 아버지원수님!

해마다 설명절이 오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찾아주시고 후대들의 새해행복을 축복해주신다.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이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노래하며 춤추면서 설명절을 즐기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 10년은 젊어지는것 같다고 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의 학생소년들은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속에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있다.

누구나 다 학교에 가서 마음껏 배우며 철따라 새옷을 입고 궁전들과 아동영화관, 명승지마다에 마련된 야영소들에서 어린시절을 그 얼마나 즐겁게 보내고있는가!

이것은 오직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학생소년들을 위하여 마련해주신 행복이며 기쁨인것이다.



167　원수님과 어린이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시는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원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해 경치좋은곳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지어주셨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도록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들도 훌륭하게 꾸려주시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시지만 탁아소 어린애의 장난감으로부터 유치원애들의 신발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다른 일을 뒤로 미루시면서라도 하나하나 돌봐주시는 김일성원수님! 그이의 바다보다 넓고 태양보다 따사로운 품속에서 이 나라의 어린이들은 밝고 희망차고 씩씩하게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 조선의 주인으로 자라나고있다.



168 수상님과 어린이들

함박눈 수북이 온 강산을 덮고 날씨는 맵짠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혁명과 건설의 바쁘신 길을 재촉하시다가 길가에서 노는 귀여운 어린것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수 없으시여 차를 멈추시고 내리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어린것들을 안아주시면서 춥지는 않느냐, 토끼털외투가 좋구나 하시면서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실 때부터 어린것들을 조국의 꽃봉오리로, 앞날의 기둥으로 여기시면서 어린것들이 명랑할 때 자신께서도 명랑하다시며 추울세라,더울세라 극진히 보살펴주신 어버이수령님!

정녕 세상에 제일 좋은것들을 먼저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 품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라는 우리 나라 어린이들처럼 행복한 어린이들이 또 어데 있으랴!



169　공장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의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혁명적교육사상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가 날을 따라 더욱 발전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국가경제기관들과 과학문화기관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은 자체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의 지혜와 힘에 의하여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170 예술영화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찬란히 꽃피우시여 우리의 문학예술로 하여금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시였다.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적문예사상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였으며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171 **인민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몸소 현지에서 인민보건사업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은혜로운 품에 안겨 그이께서 베풀어주시는 무상치료제도의 혜택을 받는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수명은 세월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다 기쁨과 행복에 넘쳐 60청춘, 90환갑, 무병장수를 노래하고있다.



172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또다시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원쑤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로선을 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67년 6월 15일, 룡성기계공장을 찾으시여 이 공장을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공장》이라고 치하해주시며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이곳 로동계급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기 위한 그이의 위대한 새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 세워주시였다.



173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공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이곳 로동자들이 새로 만들어낸 중량자동차에 《자주호》라는 이름을 달아주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믿음직한 기계제작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실로 7개년계획기간에 중량자동차를 비롯하여 6천톤프레스와 대형뜨락또르, 대형굴착기, 대형불도젤,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 대형선박과 같은 큼직큼직한 기계들 그리고 정밀기계들을 만들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현대적공장설비들까지 종합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174 **6천톤프레스직장건설을 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중공업은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완비된 중공업으로 발전되였으며 그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6천톤프레스, 이것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위용을 상징하는 빛나는 금자탑의 하나이다.



175 **수력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터전을 마련하시기 위해 공장과 농촌, 산판과 바다가를 끊임없이 찾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그이께서 오늘은 여기 북방에 자리잡은 한 청년발전소를 찾아오시였다.

몇해전까지만해도 물소리만이 산골안에 메아리치던 이곳에 자립경제의 자랑찬 기념비인양 솟아난 청년발전소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면서 그이께서는 발전소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하나의 발전소를 건설하면서도 언제나 통일된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까지를 깊이 헤아리시며 설계로부터 건설방향에 이르기까지 돌봐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더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도록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신다.

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안고 일떠선 우리의 발전소들에서 생산된 전력이 분계선을 넘어 남으로 뻗어간 송전선을 타고 거침없이 보내여질 조국통일의 그날을 어서빨리 앞당겨와야 한다.



176 전술훈련장에 오시여 전사들의 생활을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안개도 가시기전 이른 아침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전술훈련이 한창인 초소에 찾아오셨다.

일당백의 인민군전사들의 훈련모습을 만족하게 돌아보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가마차에도 오시여 국맛을 보시면서 신입대원 꼬마전사의 료리솜씨도 보통이 아니라고 치하해주신다.

추울세라, 더울세라 언제나 초병들을 잊으시지 않으시고 그 바쁘신 나날에도 몸소 찾아오시여 훈련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수령님!

초병들은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은덕과 배려에 목이 메여 힘차게 말씀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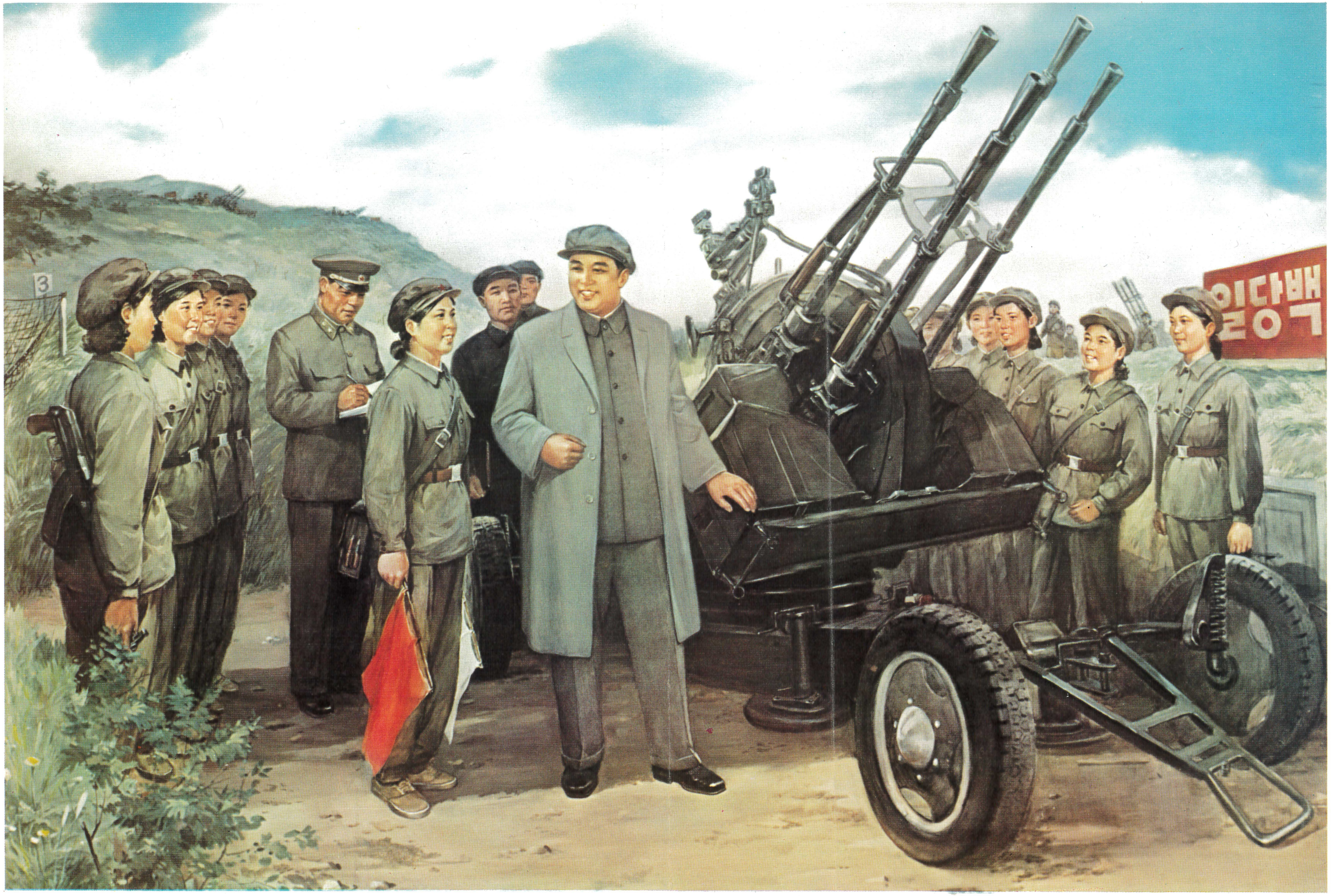
《수령님, 초소는 념려마십시오!》



177 함선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를 돌보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인민군 해군부대들을 몸소 찾으시고 해군함정들의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였으며 해군무력을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친히 함선의 갑판에까지 오르시여 해병들의 잠자리는 어떠한가, 바다에 나가서 무슨 음식을 먹는가, 문화휴식은 어떻게 하며 악기들은 넉넉한가를 다정히 물으시며 해병들의 생활을 일일이 보살펴주시였고 바다에 나가서 힘들지 않게 밥을 지어먹는 방법과 남새보관대책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실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붉은 해병들에 대한 그이의 친어버이사랑이 있기에 조국의 바다도 금성철벽이다.



178　녀성고사총수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어제는 인민군초병들을 찾으시여 초소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더니 오늘은 로농적위대 녀성고사총수들을 몸소 찾아오시였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모두들 잘 있었는가고 녀성고사총수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원수님께서는 나이는 몇살씩이나 되며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고 다정히 물어도 보시였고 일당백으로 준비된 녀성들의 솜씨를 보고싶다고 하시며 그들의 훈련모습도 오래도록 보아주셨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만나뵈온 끝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목메인 녀성고사총수들은 수령님의 미더운 녀성친위대, 결사대로 조국의 하늘을 철벽으로 지켜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179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처럼 그렇게도 인민을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어버이, 인민의 수령을 더는 알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혁명과 건설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며 인민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여 나라일을 상론하시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이 계시기에 조선은 번영하며 수령님의 전사로 살며 싸우기에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실것이며 우리 인민은 영원히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어버이 수령님의 령도밑에 천년만년 만복을 누려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기념

불멸의 서사시

발 행 시 대 사

東京都千代田区富士見 1—6—10

전화 (東京)(263) 5 4 6 1 ~ 3

발 행 일 1972년 4월 15일